

韓國企業의
對中投資 實態 및
經營成果 分析

朴相守

對外經濟政策研究院

調查分析 97-01

韓國企業의 對中投資 實態 및 經營成果 分析

朴 相 守

1997. 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序 言

韓國企業의 對中投資는 양국 수교 이후 지난 5년여동안 급증하여 1996년말 현재 許可基準으로 우리나라 全體 해외직접투자건수의 41%, 투자금액의 19.4%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양적으로 팽창한 韓國企業의 對中投資는 몇가지 특징을 나타내는바, 첫째 投資業種이 勞動集約的 部門에 집중되어 있으며, 둘째 投資地域에 있어 渤海灣과 東北 3省에 편중되어 있고, 셋째 企業形態에 있어 合資보다는 單獨投資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과 같은 現象이 韓國企業의 對中投資에 있어 어떤 문제점들을 유발하고 있는지 그 實態를 파악하고 現地 經營活動 結果에 대한 평가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현지진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地域別, 年度別, 投資持分別, 投資規模別 經營成果를 분석하였다. 對中直接投資의 內實化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時點에서 이 같은 분석은 韓國企業이 中國에서 성공적인 經營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가 中國과의 경제협력정책을 입안하는 政策當局뿐만 아니라 對中投資를 희망하는 企業들에게도 參考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今後 豫상되는 中國의 外國人直接投資 環境變化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보다 效率的인 經營活動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집필자를 대신하여 본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設問調査에 응해주신 129개 기업의 中國 現地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바이다.

1997년 11월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長 楊 秀 吉



目 次

I. 序論	7
1. 調査目的 및 方法	7
2. 報告書の 構成	9
II. 韓國企業의 對中投資 現況과 特徵	10
1. 對中投資 推移	10
2. 對中投資의 特徵	10
가. 地域別 分布	11
나. 業種別 分布	14
3. 對中投資의 패턴	15
4. 主要國의 對中投資 特徵	18
가. 日本의 對中投資 特徵	20
나. 臺灣의 對中投資 特徵	25
III. 韓國企業의 經營實態: 設問調査結果 分析	35
1. 進出動機 分析	36
가. 低賃勞動力을 이용한 輸出競爭力 確保	37
나. 內需市場進出	39
다. 現地の 投資優待條件	40
라. 現地の 값싼 原資材의 安定的 供給	40
마. 技術(部品) 및 老朽設備 輸出을 통한 輸出 誘發效果	41
바. 現地の 技術習得	41
사. 競爭企業들의 中國投資에 대한 對應戰略	43
아. 中國의 貿易規制障壁 回避	43

자. 本社次元의 Globalization 戰略에 따른 據點構築	44
차. 中國進出 橋頭堡 마련을 위한 示範投資	44
2. 分野別 經營實態 調查結果	45
가. 現地環境의 問題點	45
나. 現地法人의 事業成果에 대한 滿足度	46
다. 現地法人의 環境이 經營成果에 미치는 影響	62
IV. 對中投資의 問題點	65
1. 投資環境에서 나타나는 問題點	65
가. 一般的인 制約要因	65
나. 市場進入에 대한 制約要因	68
2. 投資行態에서 나타나는 問題點	76
V. 結語：主要 示唆點 및 向後課題	79
1. 主要 示唆點	79
가. 對中投資時 留意事項	79
나. 效率적인 對中投資를 위한 投資戰略	83
2. 向後課題	87

I. 序論

1. 調査目的 및 方法

對外經濟貿易合作部에 따르면 1996년말 현재 中國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은 許可基準으로 총 28만 3,793건, 4,693.25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投資實行額은 1,772.17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外國人直接投資의 급증은 과거 ‘엄청난 潛在 市場’으로만 評價되어온 中國이 이제는 ‘顯示화된 實質 市場’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立證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中國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같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企業의 對中國 投資 역시 매우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바, 1996년말 현재 우리나라 企業의 대중국 직접투자(韓銀기준)는 허가기준으로 3,877건, 46.2억달러(투자실행액 27.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許可件數로 볼 때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9,451건, 238.3억달러)의 41%가 中國에 集中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中國에 대한 우리나라 企業들의 直接投資가 이와같이 量的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기업의 대중 직접투자의 質的 변화는 최근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企業의 對中 投資는 여전히 勞動集約的인 업종에 집중되며, 投資地域에 있어서는 主要國의 投資가 廣東省을 중심으로 한 華南經濟圈과 上海經濟圈에 편중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 企業은 渤海灣과 東北 3省에 밀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3국 輸出을 목표로 하는 투자가 대부분이며 企業形態에 있어서는 主要國의 投資形態와는 달리 合資 보다는 單獨投資를 選好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세 가지 集中現狀으로 인해 우리나라 企業의 對中 투자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惹起하고 있

다. 우선 對中投資가 勞動集約的 製造業 中心의 生産效率 追求型 投資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국과 한국을 주 시장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향후 미국과 중국과의 通商摩擦時 우리나라의 對中 投資企業들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貿易報復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을 예고한다. 노동집약적 제조업중심의 對中投資는 同種業種의 國內기업에의 타격과 함께, 直接投資에 수반되는 技術移轉으로 인한 부메랑 효과로 低價製品 위주의 中國이 국제시장 잠식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世界化라는 市場 環境變化에서 부메랑 효과의 중요성이 과거만큼 크게 평가될 수는 없겠으나, 우리나라 企業의 對中投資에서 수반되는 技術移轉이 現地市場을 충분히 확보하기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그리고 노동집약적 업종의 對中投資가 限定된 地域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中國市場이 가지고 있는 立地 特有的 優位要素를 향유하는 데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對中投資의 地域別 집중현상은 情報費用과 投資費用 및 間接費用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외자기업간의 過當競爭으로 오히려 直接費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토지 및 임대료의 상승폭이 커질 뿐만 아니라 상승속도도 빨라지고 있으며, 勞動力의 이동이 극히 制限的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인력 스카우트를 둘러싸고 불화를 빚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임금경쟁 문제가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對中 投資는 중국현지기업과의 합작이 아닌 獨資企業 형태를 選好하고, 多數持分을 통한 강한 統制力을 追求하고 있는바, 현지 파트너와의 바람직한 관계설정뿐만 아니라 現地制度의 잦은 變更과 不確實性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能力 및 향후 內需市場 進出 基盤을 그만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과 같은 세 가지 集中現象을 초래한 우리나라 企業의 對中 投資實態 및 進出動機 등을 살펴보고 投資企業들의 地域別, 年度別, 投資持分別, 投資規模別 經營成果를 분석해 봄으로써 對中 投資企業들의 問題點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力點을 두었다.

2. 報告書의 構成

본 보고서는 모두 5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 I 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調查目的과 본 보고서의 構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였다. 제 II 장에서는 우리나라 企業의 對中國 直接投資 現況 및 特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企業의 對中 投資推移 및 投資動向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제 III 장부터는 본 조사의 구체적인 設問調查의 분석결과를 소개하였다. 설문 조사 연구는 對中國 直接投資企業들의 進出動機 및 투자기업들의 分野別 經營實態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지역(東北3省, 渤海灣, 華中/華南), 조업기간, 투자규모, 소유지분별 경영성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제 IV 장에서는 對中 投資時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한바 중국측의 投資環境上 問題點과 우리나라 投資企業의 經營上 問題點을 二元化하여 살펴보았다. 끝으로 제 V 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조사결과에 따른 主要 示唆點 및 向後課題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韓國企業의 對中投資 現況과 特徵

1. 對中投資 推移

1985년 한스물산이 홍콩을 통한 迂廻投資의 형태로 광동성에 봉제·완구공장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企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1988년까지 홍콩과 일본기업의 현지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중심으로 극히 制限的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8년부터 민간차원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종래의 迂廻投資가 直接投資의 형태로 전환되었고, 아울러 投資規模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對중국 직접투자는 進雄企業이 광동성에 텐트봉제공장 설립허가를 받을 것을 필두로 1989년에 9건,¹⁾ 1990년에 37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中國에 대한 投資는 증가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에 109건(8,184만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韓·中間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8월 이후부터는 급격히 증가하여 1992년 한해 동안 총 269건, 2억 2,130만달러(허가기준)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對中 투자의 열기는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96년말 현재 韓國企業의 對中 直接投資 累計(허가기준)는 총 3,877건에 허가금액은 46억 1,850만달러(실행액: 27억 2,02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2. 對中投資의 特徵

中國의 전반적인 外國人直接投資 誘致現況과 함께 主要國의 對中 投資 推移를 고려해보면 우리기업의 對中投資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特徵을 나타내고 있다.

1) 1989년까지 제3국을 경유한 대중국 직접투자는 총 14건에 달하였음.

〈표 1〉 對中 直接投資現況

구 분	허가건수	허가금액 (백만달러)	투자금액 (백만달러)
~ 1991 ¹⁾	161	145.7	64.5
1992	269	221.3	141.1
1993	629	622.3	263.9
1994	1,065	820.3	630.7
1995	875	1,233.6	817.9
1996	875	1,658.3	801.5
1996년누계	3,877	4,618.5	2,720.2

주: 1) 잔존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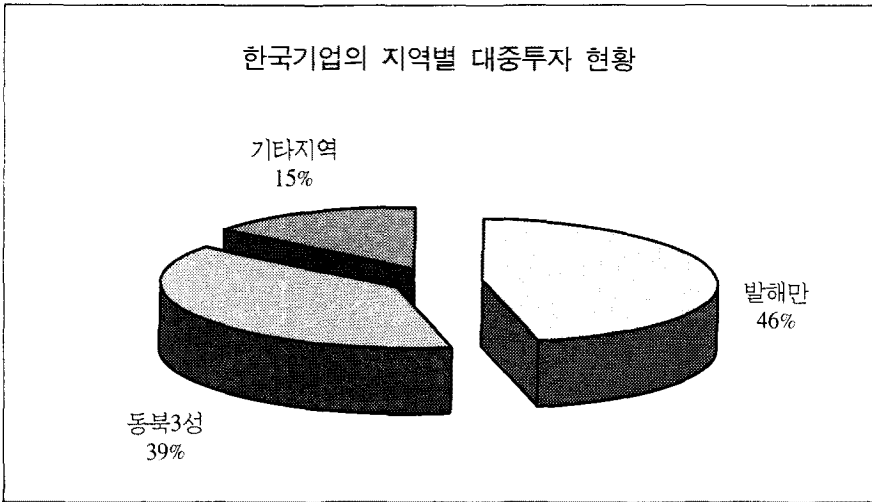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우리기업의 대중투자는 ① 노동집약적인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② 주요국의 투자가 광동성을 중심으로 한 華南經濟圈과 上海經濟圈에 집중되어 있는 데 반해 한국기업의 주투자지역은 渤海灣과 東北 3省에 편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③ 제3국 수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가 대부분이며 합자 보다는 單獨投資²⁾를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역별, 업종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地域別 分布

중국이 유치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70% 이상이 華南과 華中地域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기업들의 경우는 東北 3省과 渤海灣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1996년말 현재(잔존허가기준) 渤海灣 지역에 대

2) 1995년말 현재 전체 對中 투자기업중 독자기업이 총 1,241건으로 전체 투자기업의 44.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중 한국기업이 집중해 있는 渤海灣 지역 및 東北 3省의 경우 獨資企業의 비중은 각각 同 59.1%, 75.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투자는 1,626건으로 한국기업 전체 대중투자(잔존기준 3,538건)의 45.9%를 차지하고 있으며, 허가금액으로는 21.7억달러로 52.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조선족의 고용이 용이한 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 등 東北 3省에 대한 투자는 1,383건, 8.2억달러로 同 39.1%와 19.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기업의 전체 대중투자의 85.0%가 渤海灣과 東北 3省地域에 집중해 있는바, 이들 지역에 우리기업의 투자가 偏重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中國 中央政府가 한국과 지리적인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산둥성 정부에 한국과의 교류특혜를 부여함으로써 교류초기에 省政府가 한국과의 경제교류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점이다. 1988년 이후 양국간 비정치적 교류가 허용되면서 산둥성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990년 9월 仁川과 威海市를 잇는 貨客航路와 인천-청도간 해운노선이 최초로 개설됨으로써 山東省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둘째, 우리기업의 對中投資가 주로 이들 지역에 활발히 전개된 것은 1989년 이후로써, 이 시기에는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의 경우 이미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제반 코스트가 상당히 상승해 있었으며, 홍콩과 대만 일본계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進入障壁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山東半島와 遼東半島 開放區의 경우 1988년부터 개발과 개방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이다.

셋째, 遼寧省을 중심으로 한 동북 3성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朝鮮族 고용을 통해 해외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인의 하나인 意思疏通問題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산동성을 포함하여 地政學의으로 근접해 있고 문화적으로 친밀성을 가지고 있어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우리기업들의 현지법인 운영방식의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渤海灣 地域에 진출한 대부분의 기업들의 경우 주요 원부자재를 한국으로부터 수

〈표 2〉 對中國 投資企業의 地域別 分布(1996년말 현재 잔존허가 및 실행)

(단위: 건, 백만달러)

지역별	허가기준		실행기준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발해만 지역	1,626(45.9%)	2,169.9(52.7%)	1,372(47.7%)	1,440.7(54.1%)
북경시	227	372.5	181	243.4
천진시	350	434.4	296	312.6
산동성	949	1,287.6	812	829.9
하북성	100	75.4	83	54.8
동북3성 지역	1,383(39.1%)	816.7(19.8)	1,064(37.0%)	516.1(19.4%)
요령성	788	493.9	616	309.1
길림성	395	155.8	295	102.9
흑룡강성	200	167.0	153	104.1
기타 지역	529(15.0%)	1,131.4(27.5%)	438(15.3%)	705.6(26.5%)
상해	106	396.1	94	243.4
광둥	77	115.9	65	83.8
중국전체	3,538(100.0%)	4,118.2(100.0%)	2,874(100.0%)	2,662.5(100.0%)

자료: 상동

입하여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립 또는 가공한 후 국내로 역 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상술한 원인 이외에 우리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보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정보수집비용 최소화를 위해 유사한 업종이 먼저 진출해 있는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나. 業種別 分布

1996년말 현재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총 3,063건(잔존허가 기준)에 33.3억달러(허가기준)로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對中 투자의 86.5%(건수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중에서도 60% 이상은 특히 섬유·의복, 신발·가죽 및 조립금속, 기타 제조 등 노동집약적인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의 對中國 직접투자가 제조업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이 生産效率 追求要因, 즉 중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한 후 제3국 혹은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목적에 의해 투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3년말(잔존기준) 對中國 投資의 92.2%를 점했던 제조업의 비중(건수기준)은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1994년

〈표 3-1〉 업종별 투자현황(잔존허가)

(단위: 건, 천달러)

구 분	1993년		1994년		1995년	
	건수	허가금액	건수	허가금액	건수(%)	허가금액
제조업	962(92.2%)	890,604	1,716(86.4%)	1,499,381	2,384(86.4%)	2,337,960
무역업	7	2,389	31	10,922	41	12,057
수산업	15	4,587	27	8,101	29	7,571
기타	59	79,343	211	191,244	305	414,580
총계	1,043(100.0%)	976,923	1,985(100.0%)	1,709,648	2,759(100.0%)	2,772,168

자료: 상동

〈표 3-2〉 업종별 투자현황(잔존허가 및 실행, 1996년 12월말 현재누계)
(단위: 건, 만달러)

구 분	허가기준		실행기준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광업	17	1,407.5	15	926.9
임업	2	32.5	2	32.5
수산업	39	996.0	35	716.0
제조업	3,063(86.5%)	33,353.7	2,495	223,347.9
건설업	38	18,414.5	28	9,107.5
운수업	20	3,330.3	19	2,610.1
무역업	50	1,515.2	39	842.9
기타	309	52,593.5	241	28,675.4
합계	3,538(100.0%)	41,1826.6	2,874	266,259.2

자료: 상동

이후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바, 이는 한국기업의 對中國 投資업종이 제조업 일변도에서 점차 타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對中投資의 패턴

우리기업의 대중국 투자행태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KOTRA 중국투자정보센터는 지난해에 對中國 투자를 희망해온 총 225개 업체(1995년 기준)를 대상으로 投資地域, 投資目的, 投資類型, 投資規模, 投資動機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향후 對中 투자행태는 ① 渤海灣地域에 集中 ② 內需市場指向의 投資 ③ 合資보다 獨資選好 ④ 投資規模의 增加勢 등 4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기존의 투자패턴과 유사한 행태를 보여주었다.

먼저 본 설문조사에서 우리기업들의 投資選好地域을 살펴보면 東北 3省과 渤海灣地域에 집중되어 있어 遼寧省(20.7%), 山東省(15.9%), 北京(13.7%) 등의 지역이 투자대상의 7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

은 1993년(76.4%), 1994년(78.5%)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이들 지역에 대한 投資가 選好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KOTRA分析 地域別 投資選好度

순위	성·시	95년도(건수)	94년도(순위)	순위	성·시	95년도(건수)	94년도(순위)
1	요녕	18.8% (47)	16.4% (2)	15	호북	0.8% (2)	0.2% (16)
2	산둥	16.6% (40)	11.9% (3)	16	섬서	0.4% (1)	-
3	북경	14.4% (36)	21.7% (1)	17	산서	-	0.6% (14)
4	상해	10.0% (25)	8.1% (6)	18	주해	-	0.2% (16)
5	길림	9.6% (24)	9.6% (5)	19	산둥	-	-
6	천진	7.2% (18)	11.9% (3)	20	북건	-	0.2% (16)
7	흑룡	5.6% (14)	5.5% (7)	21	안휘	-	-
8	심천	3.2% (8)	1.7% (10)	22	호남	-	0.2% (16)
9	광둥	3.6% (9)	3.6% (8)	23	사천	-	0.4% (15)
10	강소	2.0% (5)	3.2% (9)	24	귀주	-	-
11	절강	1.6% (4)	0.9% (12)	25	운남	-	-
12	하남	1.6% (4)	0.9% (12)	26	감숙	-	-
13	하문	0.8% (2)	0.2% (16)	27	기타	3.2% (8)	1.1%
14	하북	0.8% (2)	1.5% (11)	총 계		100.0% (250)	100.0%

자료: KOTRA 제공

한편, 對中國 投資動機에 대해 응답자의 58%가 中國 內需市場에 대한 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기업들이 短期的 利益確保를 위해 낮은 임금과 토지가격을 이용하려는 消極的인 投資에서 長期的으로 市場開拓을 추구하는 積極的인 投資로 투자패턴이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현지 생산품의 주요 판매시장으로 응답자의 46.8%가 中國市場을 고려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國內의 高賃金으로 인한 海外競爭力 상실에 따른 對中國 投資'도 전체 응답자의 29.0%에 달해 여전히 對中國 投資는 勞動集約的 業種이 主流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KOTRA分析 對中國 投資動機

투 자 동 기	1995년도(건수)	1994년도
1. 중국시장 진출확대	58.1%(148)	63.0%
2. 국내 고임금으로 인한 해외경쟁력 상실	29.0%(74)	25.5%
3. 원자재 확보	10.2%(26)	7.4%
4. 환경공해	1.7%(4)	3.0%
5. 기타	1.2%(3)	1.1%
총 계	100.0%(225)	100.0%

자료: 상동

投資類型에 대한 選好度에 있어서는 合資形態가 1993년도 72%에서 1994년에는 33.8% 1995년에는 다시 32.4%로 減少勢를 나타낸 반면, 獨資投資는 1993년에서 1995년 기간중 각각 24%, 30.9%, 37.3%를 나타내 꾸준히 增加勢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中國進出에 따른 經驗蓄積, 外資企業관련 制度의 整備와 이에 따른 制度的 規制強化, 특히 外資企業이 누려왔던 優待政策에 대한 漸進的인 撤回 등으로 企業의 效率的인 經營管理가 더욱 더 중요한 問題로 浮刻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³⁾

그리고 向後 希望投資規模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조사대상업체의 60.9%가 100만달러 미만의 小規模 投資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對中投資는 小規模 勞動集約的 投資에 集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0만달러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업체

3) 지금까지 我國企業에 合資投資方式이 선호되어온 것은 우리기업의 對中 투자진출 經驗 不足에 따른 不確實性을 중국측 파트너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과 중국시장에서는 특히 파트너의 '관시(關係):인간관계'가 유독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既진출업체들의 경험에 따르면 계약시기에 兩 당사자의 의견 조정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비록 원만하게 출발한 기업일지라도 합자파트너의 役割이 期待보다 미약할 뿐만 아니라 조업후에는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커다란 걸림돌로 지적됨에 따라 최근에는 獨資進出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投資類型別 選好度

구 분	1995년도 (건수)	1994년도
1. 단 독 투 자	37.3% (84)	30.9%
2. 합 자	32.4% (73)	33.8%
3. 합 작	24.0% (54)	31.5%
4. 입 가 공	4.4% (10)	3.4%
5. 기 타	1.9% (4)	0.4%
총 계	100.0% (225)	100.0%

자료: 상동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4년 대비 1.6% 포인트 상승한 12.0%에 달하고 있어 향후 對中國 투자는 中小企業 爲主의 小規模 투자와 함께 大規模 投資가 계속 확대될 것이 예견된다.

〈표 7〉 希望投資規模

투 자 규 모	1995년도 (건수)	1994년도
1. 50만달러 이하	44.0% (99)	42.8%
2. 50-100만달러	16.9% (38)	23.2%
3. 100-150만달러	27.1% (61)	23.6%
4. 500- 1000만달러	5.8% (13)	6.2%
5. 1000만달러 이상	6.2% (14)	4.2%
	100.0% (225)	100.0%

자료: 상동

4. 主要國의 對中投資 特徵

主要國의 對中國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홍콩·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등 화교자본과 일본, 미국기업에 의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79~96년간 계약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들 지역과 국가의 직접투자 건수는 총 247,206건에 투자규모(계약기준)는 3,895.04억달러로 중국전체 투자

건수 및 투자규모의 각 87.1%와 82.9%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홍콩·마카오가 2,698.26억달러로 전체 투자규모의 57.5%, 대만이 345.3억달러로 7.3%, 미국이 351.69억달러로 7.5%, 일본이 263.82억달러로 5.6%, 싱가포르가 235.97억달러로 5.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韓國은 對中國 투자건수 및 실행액 기준으로는 전체 對中國 투자국중 6위로 나타났으나 계약액 기준으로는 영국 다음인 7위국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주요국가들의 對中國 投資의 특징을 살펴보면 홍콩의 경우 沿海開放地域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廣東省을 중심으로 華南經濟圈에 상당수가 투자되고 있다. 업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경공업, 섬유, 전자부품 조립 등 勞動集約型 업종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輸出指向的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10〉 主要國의 對中國 投資推移

(단위: 억달러)

국 별	1996년			1979~96년 누계		
	건수	계약액	실행액	건수	계약액	실행액
홍콩/마카오	10,682	284.49	212.57	168,318	2,698.26	1,017.97
대만	3,184	51.40	34.74	34,964	345.3	149.04
미국	2,517	69.15	34.43	22,240	351.69	142.94
일본	1,742	51.30	36.79	14,991	263.82	141.85
싱가폴	851	63.14	22.43	6,693	235.97	61.66
한국	1,895	42.36	13.57	8,116	109.75	36.16
영국	326	25.42	13.0	1,798	118.04	35.06
독일	256	9.98	5.18	1,500	54.08	17.10
프랑스	171	12.35	4.23	1,128	30.72	15.07
태국	205	4.38	3.23	2,337	39.57	12.41
총 계	24,529	732.13	423.5	283,793	4,693.25	1,772.17

자료: 『국제무역』, 1994. 5. 17

『중국대외무역경제연감』, 각년호, 대외무역경제합작부, 外資司, 1997. 3.

美國企業의 경우, 對中國 투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中國進出의 目的을 內需市場 공략에 두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투자 동기로 인해 미국기업의 투자는 多國籍企業의 進出, 多樣한 業種分布, 巨大都市에의 集中, 合資企業의 選好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美國企業의 對中國 投資는 세계적인 多國籍企業에서부터 中小企業 또는 個人投資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따라서 투자업종도 천연자원의 개발에서부터 맥도널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미국의 對中國 投資는 中國政府의 政策的 育成分野 즉 자원개발, 화학, 전자, 하이테크 메디칼(제약 포함)부문과 중국의 低賃金과 미국의 資本 및 流通채널상의 利點이 결합된 輕工業分野(신발, 완구, 피혁제품, 의류 등) 등으로 대별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호텔, 기타 부동산 사업, 석유개발에 종사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설비 및 서비스공급, 수출형 경공업제품 가공분야에 집중되었으나, 1986년 중국정부가 製造業部門에 대한 투자 獎勵 정책을 실시한 이래 전자, 섬유, 농산품 및 식품가공, 화학제품, 소비재 등 중국의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미국 중소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와 가장 競爭關係가 깊은 日本 및 臺灣의 對中投資 特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日本의 對中投資 特徵

일본의 對中경제협력 형태는 지금까지 직접투자보다는 借款과 貿易에 의한 경제교류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⁴⁾ 그러나 일본의 대중투자는 1980년대 중반이후 국내외 경영여건의 악화에 따라 일본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진출이 급격히 증가세를 보여왔는바, 일본기업의 對中國 投

4) 실례로 1996년말 기준 일본의 대중교역액은 601억달러로 중국전체 교역액의 20.7%에 달하고 있으나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규모는 1996년말 현재 263.82억달러로 중국 전체 직접투자 유치액(계약액기준)의 5.6%에 불과하다.

資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⁵⁾

1) 産業內 工程分業型 및 市場先占型 投資

1980년대 중반이후 對中國 직접투자는 국가간 비교생산비에 기초한 産業間 分業理論에 기초해 전개되었으며, 고지마의 소위 ‘日本型 直接投資 모델’에서 주장된 것처럼 식품, 섬유·의류 등 比較劣位産業의 生産基地가 중국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특히 1992년 이후부터 이 같은 定型化된 對中國 투자 이외에 새로운 西歐型 投資패턴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바, 지금까지 對中國 투자에 있어서 보수적이고도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여 왔던 多國籍企業들이 중국정부의 內需市場의 開放幅 확대조치에 부응하여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노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일본기업의 對中國 투자는 전반적으로 中小企業에 의한 原價節減型 내지 産業間 分業型 투자가 대종을 이루면서도 內需市場을 겨냥한 多國籍企業의 産業內 分業型 투자가 늘어나는 二重構造를 띠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 1990년대 초의 新 엔高 추세하에 중국의 저임을 활용하여 원가를 절감하자는 의도가 아직도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기업의 경우 생산원가 절감목적 이외에도 다른 선진국, 한국 및 일본 내 다른 대기업에게 중국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는 市場先占型投資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은 미국, 유럽 및 한국기업의 市場進入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進入障壁을 쌓아 市場占有率을 유지·확대하는 한편 他외자 기업과의 ‘戰略的 提携’ 등을 통해 기술우위와 고품질에 관한 인지도를 높이는 攻勢的 투자전략을 쓰고 있다. 또한 同一 기업 내에서도 母企業과 현지 子企業間에 工程分業型 직접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모기업은 고기술·고부가가치제품을 특화하고, 중국내 현지 자기업은 일반보급형 내지 수입 대체품을 조립 생산하는 분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즉 일본 내 모기업은

5) 김익수, 『일본기업의 대중직접투자 동향과 전략』, KIEP, 1993. 12.

현지기업에 부품·기술·자금을 공급하는 반면, 현지기업은 주요 상품별·도시별 시장정보와 완성품을 모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전체의 ‘連結經濟’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표 11〉 中國에 進出した 日本企業의 母企業과 현지 子企業간의 關係

	모기업	현지기업	모기업과 현지기업간의 관계
일 반	高부가가치 高기술	일반보급형 기술 현지국의 수입대체품	모기업: 부품, 기술, 자금공급 현지기업: 보급품의 조립가공 모기업에 시장정보 제공
가 전	Electronics化 기술	냉장고·세탁기·칼라 TV 등 보급형 가전 제품	
자동차	핵심부품 제조기술 경량화 기술	엔진·카부레타, 차체 관련 기술, 도색기술	

자료: 상계서, p. 115

2) 流通業과 製造業의 共同進出

日本의 對中國 투자업종은 제조업 위주에서 부동산개발, 유통 등 비제조업으로 다양화되고 있고, 제조업 부문내에서도 식품, 섬유, 의류 등 勞動集約的 産業에서 전기, 전자, 화학, 자동차 등 資本集約型 業種으로 高度化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두터운 中國 內需市場의 壁을 효과적으로 뚫기 위해서 ‘製造業과 流通業의 同伴進出’의 사례가 늘고 있는바, 북경, 상해, 심천, 대련, 천진 등 대도시에 유통부문의 ‘橋頭堡’ 市場 구축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3) 他 日本企業 및 他 外資企業과의 共同投資

최근 일본 대기기업의 對中國 투자패턴중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중 하나는 투자 계열기업내 기술수준이 충분하지 못해 부득불 필요기술과 부품을 타기업에서 취득해야 할 경우, 일본의 다른 다국적기업의 중국내 현지

〈표 12〉 日本의 流通企業 對中 進出現況

市	기업명	개점시기	매장면적 (m ²)	형태	장소	업종
上海	上海三越	1990	281	경영관리계약	花園飯店	쇼핑센터
	上海近鐵百貨店	1991	120	업무위탁	上海센터	쇼핑센터
	上海第一八百件有限公司	1993.4	700	합자합영	南京西路	테스트숍
	華亭伊勢丹有限公司	1993.6	8,000	〃	淮海中路	백화점
	上海八百件聯農超市	1994	583	〃	廣靈一路	의류
	NEXTAGE 上海新世紀商厦	1995.12	122,000	〃	浦東	백화점
	上海八百件驛발딩店	1995	1,300	〃	上海驛	음식
北京	BITTC(西友)	1988	100	업무위탁	天壇아파트	쇼핑센터
	賽特購物中心	1992.12	12,000	경영관리계약	建國門路	백화점
	北京다이에	1995	30,000	합자합영	東單大街	쇼핑센터
深圳	深圳八百件沙頭角店	1991.9	1,500	합자합영	沙頭角	슈퍼
	深圳西武百貨有限公司	1993.10	3,500	〃	市内	백화점
	深圳福田八百件	1995	100,000 (敷地)	〃	-	쇼핑센터
天津	天津伊勢丹百貨公司	1993	10,500	합자합영	天津南京路	백화점
	永安百貨店	1994	24,800	영업권 매입	天津驛前	백화점
大連	阪神百貨店	1996	57,000	기술지도	大連驛 地下商街	
	마이칼大連(나이치社)	1996	-	100%독자	全國에서 事業展開	

자료: 『中國經濟』, 1994년 10월호, p. 25. 『中國年鑑』, 1994년, p. 125.

金益洙, 『中國內需市場의 構造的 特性과 進入·流通障壁』, KIEP, 1995. 5

법인 혹은 외국기업과 투자지분을 공유하거나 부품조달, 판매망구축, 정보수집 등에 관해 상호제휴 및 연대관계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 조립부문의 경우 이토츄(7.5%)와 마쓰다(17.5%)가 공동투자하였고, 소형트럭 생산과 관련해서는 이스즈(15%)와 京連興業(10%)이 공동투자하

고 있다. 이밖에 일본기업들은 사적인 ‘關係’가 중요한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대만·홍콩·마카오·아세안국가에 소재한 화교의 활용에도 중점을 두고있는데, 이들 화교기업들과의 共同投資進出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4) 內需市場接近 條件附 하이테크 産業의 對中 投資

1990년대 들어 일본기업은 다른 외자기업과 경쟁이 심한 자동차·전자 산업(반도체, 대형 TV수평화면, 캠코더 등) 부문에 대한 대중투자 및 기술 이전의 경우,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직접투자나 합작생산 등을 통해 기술이전을 감행하는 대신 일정비율의 內需市場接近을 보장받거나 自社로부터의 자본재·부품·기술의 구매를 조건부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投資據點의 多邊化

일본의 對中國 투자는 地域別 分布에 있어서 北上하는 기업체의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철강, 가전, 자동차, 통신(특히 TDX) 등의 산업분야에서는 요녕성, 흑룡강성 지역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진출이 강화되고 있다. 즉 1980년대 초에는 광둥성의 심천 및 광주시에 核心據點都市를 마련한 후 주위의 中山, 惠州, 湛江, 汕頭, 珠海로 多邊化하는 전략을 썼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北上하는 遼寧省을 중심으로 해서 東北 3省을 공략하고 遼寧省내에서도 大連, 沈陽, 營口的 經濟技術開發區를 거점으로 삼아 주위의 遼陽, 撫順, 鞍山, 本溪, 錦州, 丹東 등지로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한편 자원개발, 농림산물 가공분야, 가전분야의 경우, 양자강 중류의 中部內陸地域으로 거점을 다변화함으로써 남경-무한-중경-성도를 잇는 중원 中大都市의 內需市場을 겨냥해 나가고 있다.

6) 進出方法의 集團化·組織化

일본의 對中國 投資는 과거에 개별기업의 獨資投資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集團 또는 그룹으로 진출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主要特徵으로는 계열 中小企業과의 共同進出, 日本 工業團地 및 地方 中小企業의 工業團地 조성후 共同進出 등을 들 수 있다.

7) 持株會社의 設立

1990년대 이후 1개사가 多數據點을 갖는 형태의 기업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거점을 통괄하는 持株會社⁶⁾의 설립이 활발해지고 있다. 실례로 이토츠키(伊藤忠)상사가 단독으로 투자한 ‘이토츠키中國集團(有)’, 도미다(富田)가 合資로 투자한 ‘中興金虎國際投資(有)’를 설립한 이래, 제어기기 메이커인 오무론, 슈퍼체인망의 니치이, 마쓰시다(松下)전기산업, 히타지(日立), 산요(山洋)전기 등이 인가를 받았으며 이밖에 미쓰비시(三菱)상사, 미쓰이(三井)물산, 마루베니(丸紅) 등도 설립준비중에 있으며, 국제적인 流通그룹인 야오항은 ‘야오항中國投資公司’의 설립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

나. 臺灣의 對中投資 特徵

1) 投資動機

臺灣企業의 對中國 투자에 대한 조사결과 대륙에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대만 중소기업의 투자동기는 대륙의 풍부한 저임노동력 활용이 가장 중요

6) 산하기업 제품의 수출, 국내판매, 원자재조달 등의 대리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持株會社는 내국민 대우를 인정받아 중국기업과 거의 대등한 취급을 받게되며, 중국내에서 投融資事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지기업과의 합자사업 인가가 간소화되고 중국인의 직접고용 및 물류 등이 자유로와 또한 조건에 따라서는 산하기업간의 외화용통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제약조건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 今井理之, 『對中投資』, 일본무역진흥회, 1995. 3

하게 지적되고 있으며, 다음 언어, 혈연 문화상의 동질성 및 저가의 토지 및 공장의 활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臺灣企業의 對中 投資動機

조사 1		조사 2	
투자동기	선택비율	투자동기	선택비율
풍부한 저임노동력	93%	저임의 노동력 활용	95.8%
동일언어, 혈연에 따른 의사소통의 용이성	75%	언어, 문화상의 유사성	82.3%
저가의 토지 및 공장	63%	저가토지활용의 용이성	58.3%
방대한 대륙의 내수시장	43%	외국구매자의 요구	40.6%
노후설비의 활용	31%	모기업 위험의 분산	33.3%
값싸고 풍부한 원자재	31%	노후설비의 활용	32.3%
중국측의 각종 특혜	31%	투자우대조건	31.3%
		현지시장 판매	26.0%
		제3국제공 GSP	16.7%
		원자재 확보	4.2%

주: 〈조사1〉은 대만의 全國工業總會가 1991년 25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임.

〈조사2〉는 대만 中華經濟研究院의 嚴宗大, 李惠琴이 대륙에 투자한 96개 신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자료: 金時中, 『대만기업 중국투자의 현황과 파급효과』, KIEP, 1993, 12, p. 37

이밖에 외국고객(OEM 구매선)의 요구, 노후설비의 활용, 현지내수시장의 진출, 대륙측이 제공하는 각종 특혜, 풍부하고 값싼 원자재 활용 등도 투자동기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최근까지 대만기업의 대륙투자는 대부분 값싼 노동력, 토지 및 문화적 동질성 등 현지 특유의 요소를 활용하여 생산비 절감을 추구하는 이른바 生産效率性追求型(efficiency-seeking)투자라고 할 수 있다. 同 유형의 투자는 종래 대만상품 시장을 겨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륙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대륙투자에 대한 제약이 완화될 경우 투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는 대만의 대기

업들은 대륙의 市場潛在性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바, 실제로 統一, 味全 등 음식료품 업종의 대기업을 필두로 하여 전자·통신업종, 자동차 부품(타이어 등) 및 오토바이, 화학업종의 대기업들이 이미 대륙 內需市場 進出을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 業種別 投資

대만기업의 업종별 對中國 투자현황과 관련된 대만측 통계를 살펴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1990년 10월 8일~1991년 4월 8일 최초의 의무 등록기간중 등록된 1991년 3월까지의 업종별 투자현황 및 동 기준에 따라 분류된 91년까지의 통계와 1991년 이후 臺灣 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가 별개의 업종분류에 따른 1991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업종별 투자통계가 있다.

아래의 <표 14> 臺灣企業의 對中國 투자 業種別 分布現況 I 은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0년까지의 대만기업의 대륙투자는 전자·전기(부품 및 제품조립), 자전거, 신발, 섬유·의류, 플라스틱제품, 금속제품, 음식료품 및 잡제품(가방, 체육용품, 우산 등)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업종은 기본적으로 勞動集約的 産業이거나 業種自體는 資本集約的 産業이지만 具體的인 投資産業은 勞動集約的 工程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들 업종은 대부분 1980년대 臺灣의 주도 輸出산 업으로, 그 생산기지가 대륙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1991년부터 최근까지의 투자업종 분포를 나타내주고 있는 <표 15, 16> 臺灣企業의 對中國 投資 業種別 分布現況 II 를 통해 살펴보면 투자업종이 점차 기술집약적 업종 및 내수진출형의 업종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91년 이후에도 신발·의류, 전자·전기, 플라스틱, 피혁 등의 노동집약적인 업종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1993년부터는 그 비중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밀기기, 일차금속 및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 자본·기술집약적 업종의 비중이 증가하고

〈표 14〉 臺灣企業의 對中 투자 業種別 分布現況 I (1991년 3월 현재)

(단위: 천달러, 건)

산 업	1991.3까지		1991		산 업	1991.3까지		1991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전자 및 전기부품	102,748	242	1,355	3	가죽	6,680	58	511	3
차량 (대부분 자전거)	78,923	202	6,875	6	제지 위생제품	6,680	11	693	3
신발	58,751	306	8,471	16	지퍼	6,490	10	0	0
서비스업	56,472	62	0	0	고무제품	6,478	31	2,934	8
플라스틱제품	44,582	129	16,475	31	소매업	6,393	37	200	1
섬유	31,995	74	6,251	4	안경	5,593	14	0	0
금속제품	30,400	85	10,312	12	완구	5,126	56	404	2
농산물 및 목축업	21,378	35	0	0	편물	4,945	24	1,365	1
체육용품	20,348	59	na	na	유리제품	4,920	10	642	2
의복	17,876	106	7,356	16	낙시기구	4,557	19	0	0
전광제품	17,566	67	400	1	부엌 및 화장용품	3,761	22	157	3
핸드백, 서류가방	16,466	40	152	1	의료공업	3,007	11	0	0
목재가공	15,688	46	4,762	6	가구	2,891	15	1,048	3
식품가공	13,807	39	11,834	11	그립	2,793	21	424	2
전기기기	13,343	37	25,445	39	장갑	2,247	15	52,860	3
모직섬유	13,012	62	5,952	9	자동차	2,185	7	0	0
수공업	11,062	48	470	3	염색	2,030	5	0	0
시계 및 시속계	10,989	12	2,739	2	비료	1,800	1	0	0
우산	10,829	62	335	4	옷염료액	1,655	15	501	2
야채 및 과일가공	10,609	36	7,474	8	교육기기	1,518	6	250	1
도자기제조	10,214	54	2,175	3	어업장비	1,328	2	0	0
죽제품	10,210	48	302	4	수동식기계	1,318	6	700	1
기계	9,461	30	3,168	4	선물용품	903	14	0	0
의료기기	9,251	10	282	1	렌즈	751	4	0	0
광물 및 석제제품	8,964	28	1,713	4	진주 및 보석	410	7	0	0
석유화학제품	7,158	37	3,438	6	기타	1,759	75	3,754	9
종이제품	6,920	15	818	3	합계	735,915	2,503	174,958	242

자료: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1991. 5. 金時中, 『대만기업 중국투자의 현황과 과급효과』, KIEP, 1993. 12. p. 42.

〈표 15〉 臺灣企業의 對中 투자 業種別 分布現況 II-1 (1991~1995)

(단위: 천달러, 건)

업종	1991		1992		1993		1994		199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누계)	금액(누계)
농림업	-	-	-	-	122	15,740	7	2,330	4(133)	2,149(20,219)
어업 목축업	-	-	-	-	33	14,263	6	7,134	-(39)	-(21,397)
광업, 토석채취업	1	900	2	610	8	3,085	5	2,647	2(18)	3,244(10,486)
식품, 음료제조업	19	19,308	27	46,415	791	324,555	73	145,846	32(942)	117,447(653,571)
방직업	5	13,631	19	23,255	468	178,546	40	41,853	22(554)	60,899(318,184)
신발, 의류	26	13,192	21	8,502	438	104,299	28	25,085	16(529)	19,802(170,880)
파혁, 포피제조업	6	2,198	10	4,942	201	54,092	14	4,569	5(236)	7,180(72,981)
나무, 죽제품	15	6,301	13	7,600	410	145,114	38	22,463	13(489)	25,598(207,076)
제지, 인쇄업	7	1,852	7	7,310	250	94,328	29	12,359	9(302)	20,430(136,279)
화학제품	9	2,977	17	12,765	607	186,221	82	89,346	34(749)	94,571(385,880)
고무제품	18	31,943	4	11,481	173	122,280	16	21,604	9(220)	38,035(225,343)
플라스틱제품	40	22,485	42	44,961	1,008	375,920	82	73,302	27(1,199)	62,736(579,404)
비금속광산물	12	5,714	9	4,479	413	185,438	37	82,607	19(490)	47,016(325,251)
일차금속 및 금속	13	9,319	21	10,664	776	256,501	79	90,328	50(939)	116,805(483,617)
기계제조	9	8,588	1	4,000	22	58,870	44	38,652	18(298)	33,493(143,604)
전자, 전기제조	42	31,568	31	34,555	1,190	445,008	148	157,011	84(1,495)	214,796(882,938)
운수장비제조	-	-	12	7,441	285	133,992	19	35,692	47(363)	101,987(279,112)
정밀기계	14	3,982	28	18,015	1,181	286,492	80	44,162	23(1,326)	29,454(382,105)
건축업	-	-	-	-	75	10,605	14	2,728	4(93)	3,310(16,643)
도소매	-	-	-	-	62	41,061	11	13,564	22(95)	40,035(94,660)
무역업	1	200	-	-	108	29,694	20	7,572	10(139)	16,155(53,621)
요식업	-	-	-	-	103	18,012	5	2,385	6(114)	2,618(23,015)
운수업	-	-	-	-	66	7,295	7	13,180	5(78)	8,212(28,687)
창고업	-	-	-	-	4	1,178	1	1,470	1(6)	6,000(8,648)
금융보험업	-	-	-	-	4	2,443	-	-	-(4)	-(2,443)
서비스업	-	-	-	-	305	68,257	43	20,031	25(373)	10,668(98,956)
기타	-	-	-	-	22	5,122	6	4,289	3(31)	10,072(19,483)
합 계	237	174,158	264	246,992	9,329	3,168,411	934	962,209	490(11,254)	1,092,713 (5,644,483)

자료: 臺灣 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 『統計月報』, 1995, 12.

〈표 16〉 臺灣企業의 對中 투자 業種別 分布現況 II-2 (1996)

(단위: 천달러, 건)

업종	1996		1991~9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림업	3	1,100	136	21,319
어업 목축업	-	6,000	39	27,397
광업, 토석채취업	3	7,355	21	17,841
식품, 음료제조업	30	121,702	972	775,273
방직업	21	96,881	575	415,065
신발, 의류	3	9,750	532	180,630
피혁, 모피제조업	2	750	238	73,731
나무, 죽제품	15	21,328	504	228,404
제지, 인쇄업	9	31,977	311	168,256
화학제품	26	98,830	775	484,710
고무제품	9	23,670	229	249,013
플라스틱제품	25	63,645	1,224	643,049
비금속, 광산물	12	35,940	502	361,191
일차금속 및 금속	37	128,123	976	611,740
기계제조	19	51,874	317	195,478
전자, 전기제조	69	276,862	1,564	1,159,800
운수장비제조	26	114,125	389	393,237
정밀기계	18	39,898	1,344	422,003
건축업	3	634	96	17,277
도소매	16	28,624	111	123,284
무역업	6	1,061	145	54,682
요식업	1	3,100	115	26,115
운수업	4	11,340	82	40,027
창고업	1	5,100	7	13,748
금융보험업	6	16,475	10	18,918
서비스업	18	27,097	391	126,053
기타	1	6,000	32	25,483
합 계	383	1,229,241	11,637	6,873,724

있으며, 또한 음식료품, 도·소매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 基本的으로 內需市場을 對象으로 하는 업종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초기의 주종 투자업종과 뚜렷이 구별되고 있다.

3) 地域別 投資

1991년 4월 8일까지 등록된(1991년 3월말 누계) 대만기업의 대중투자 지역별 분포현황에서 살펴보면 광둥성과 복건성에 대한 집중이 뚜렷이 나타나 이 2省을 합할 경우 전체 투자건수의 72.1%, 투자금액의 67.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兩省내에서도 深圳과 廈門의 두 經濟特區地域에 투자가 가장 집중되고 있다. 廣東省과 福建省외에는 上海 및 江蘇省의 투자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上海의 경우에는 同 기간중 평균 투자규모가 다른

〈표 17〉 臺灣企業의 大陸投資 地域別 分布 I (1991년 3월 현재 누계)

(단위: 천달러, 건)

지역	1991년 3월 현재 누계		지역	1991년 3월 현재 누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광둥성	1,208	327,899	북경시	30	25,029
심천특구	379	111,682	산둥성	46	18,081
광주시	149	55,996	해남성	49	15,023
동완시	188	15,776	질강성	56	14,851
산두특구	39	12,040	요녕성	45	10,092
주해특구	42	111,301	천진시	13	8,793
복건성	598	179,523	강서성	16	7,273
하문특구	275	92,205	호북성	15	5,418
복주시	119	44,903	사천성	13	3,725
상해시	78	87,032	하북성	11	3,547
강소성	76	27,657	기타	249	19,952
			총계	2,503	753,915

자료: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1991. 5, 김시중, 『대만기업 중국투자의 현황과 과급효과』, KIEP, p. 45

지역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복건성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은 臺灣海峽을 사이에 두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특성과 대만주민의 45%가 복건성 출신일 뿐만 아니라 臺灣語가 복건남부의 閩南語라는 특성으로 인해 血緣과 地緣에 의한 진출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臺灣企業의 이같은 投資地域의 分布特徵은 1991년 이후에도 대체로 유

〈표 18〉 臺灣企業의 大陸投資 地域別 分布 II-1

(단위: 천달러, 건)

	1991		1992		1993		1994		199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91~95 누계)	금액(91~95누계)
광둥	109	73,325	127	112,038	3,054	1,047,811	236	230,927	114(3,640)	222,748(1,636,849)
복건	59	55,961	47	29,584	1,528	473,800	108	96,624	52(1,794)	121,656(777,625)
광서	-	-	2	2,143	87	14,764	7	2,347	-(96)	-(19,254)
해남	3	412	3	1,535	149	61,954	8	9,115	1(164)	649(73,665)
상해	19	21,138	17	15,596	1,047	410,698	141	157,671	89(1,313)	224,160(829,263)
강소	28	24,398	42	34,389	2,017	833,307	264	391,814	163(2,514)	394,772(1,678,680)
절강	3	193	10	16,756	485	124,843	62	62,802	27(587)	57,425(262,019)
호북	1	800	-	-	98	35,931	21	8,093	7(127)	24,436(69,260)
호남	2	138	3	8,048	102	21,925	11	4,241	29(147)	31,563(65,915)
사천	2	170	1	426	158	61,670	18	32,515	3(182)	6,500(101,281)
하북	9	7,475	17	22,271	623	194,299	83	56,814	48(780)	83,194(364,053)
하남	1	248	-	-	121	17,094	16	6,635	4(142)	2,902(26,879)
산둥	9	2,059	5	1,983	303	95,029	31	24,580	8(356)	24,043(147,694)
요녕	3	308	3	15,598	192	49,316	15	5,908	10(223)	36,607(107,737)
길림	-	-	-	-	32	9,825	5	1,482	-(37)	-(11,307)
흑룡강	-	-	1	241	11	1,955	2	3,281	5(19)	6,932(12,409)
기타	8	8,671	3	1,980	369	124,888	47	25,031	19(446)	79,286(239,856)
합계	237	174,158	264	246,992	9,329	3,168,411	1,934	962,209	490(11,254)	1,092,713(5,644,483)

자료: 대만 경제부 投資審議委員會, 『統計月報』, 1995. 12

〈표 19〉 臺灣企業의 大陸投資 地域別 分布 II-2

(단위: 천달러, 건, %)

	1996		1991~1996	
	건수	금액	건수(전체비중)	금액(전체비중)
광둥	93	282,816	3,733(32.1)	1,969,665(28.7)
복건	66	110,884	1,860(15.9)	888,509(12.9)
광서	1	850	97(0.8)	20,104(0.3)
해남	-	-	164(1.4)	73,665(1.1)
상해	65	243,843	1,378(11.8)	1,073,106(15.6)
강소	64	298,148	1,265(10.9)	1,147,565(16.7)
절강	21	32,754	608(5.2)	294,773(4.3)
호북	4	4,069	131(1.1)	73,329(1.1)
호남	3	15,064	150(1.2)	80,979(1.2)
사천	4	12,370	186(1.6)	113,651(1.7)
하북	26	132,903	806(6.9)	496,956(7.2)
하남	1	600	143(1.2)	27,479(0.4)
산둥	10	43,198	366(3.1)	190,892(2.8)
요녕	8	26,269	231(2.0)	134,006(1.9)
길림	-	-	37(0.3)	11,307(0.2)
흑룡강	-	-	19(0.2)	12,409(0.2)
기타	17	25,473	463(4.0)	265,329(3.9)
합계	383	1,229,241	11,637(100.0)	6,873,724(100.0)

자료: 대만 경제부 投資審議委員會, 『統計月報』, 1996. 12

지되어 廣東省과 福建省이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投資地域의 多邊化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3년 이후 상해를 중심으로 하여 江蘇省과 浙江省을 포함하는 楊子江 三角洲지역으로의 투자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四川, 湖南, 河北, 山東, 海南 등 내륙 및 연해지역에 대한 투자도 점차 증가세를 보여 투자지역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1~1996년의 누계를 보면 상해와 강소성에 대한 투자가 각각 1,378건(중국전체의 11.8%), 1,265건(同 10.9%)에 투자액은 10.7억달러(同 15.6%), 11.5억달러(同 16.7%)에 달해 上海 및 江蘇省이 廣東省(同

32.1%, 28.7%) 및 福建省(同 15.9%, 12.9%)에 이어 臺灣 最大の 投資對象 地域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韓國企業의 經營實態: 設問調查結果 分析

本章에서는 中國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經營實態를 設問調查를 통해 살표보았다. 본 調查結果는 지난 1996년 上半期 中國에 投資·操業중인 韓國企業을 대상으로 經營實態에 관한 設問조사(총 129개업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의 操業開始年度, 業種, 地域, 實際投資規模 및 所有持分, 輸出比率別 構成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0〉 設問 應答企業의 構成

操業開始 年度別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무응답	합계
3	2	11	24	33	43	11	2	129

業種別

음식료품	섬유·의류	신발,피혁	목재, 가구	종이, 인쇄	석유, 화학
5	54	11	1	1	2
비금속광물	금속제품	전기,전자	기계장비	기타제조업	합계
3	9	19	2	21	129(1)

주: ()는 무응답

地域別

동북3성 지역	발해만지역	화중지역	화남지역	기타	합계
26	75	20	7	1	129

實際投資 規模別

~100달러	~250만달러	~500만달러	~1,000만달러	1,000달러 이상	합계
63	23	18	10	3	129(12)

주: ()는 무응답

所有持分別

~50% 미만	50%	~100% 미만	100%	합계
9	6	27	79	129(9)

주: ()는 무응답

輸出比率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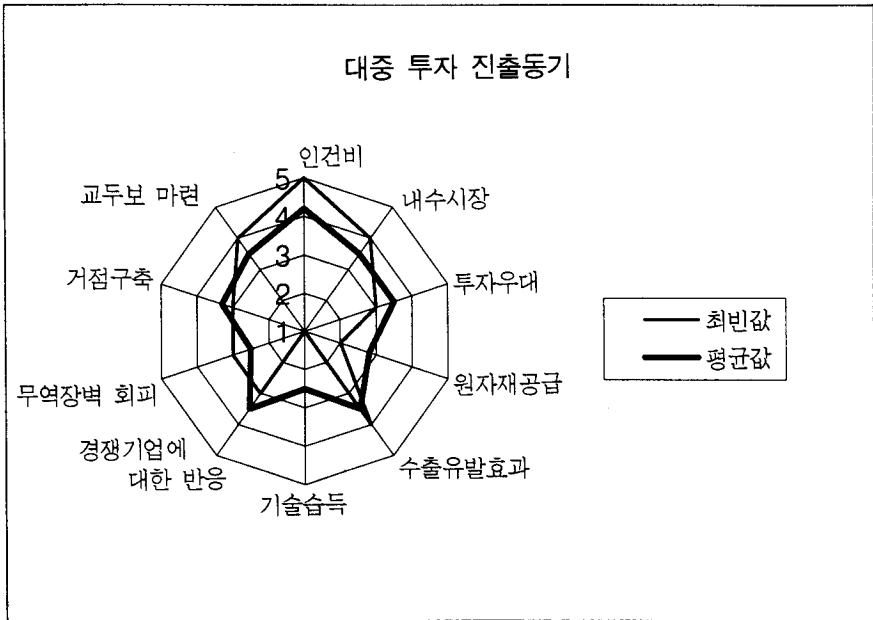
70% 미만	70% 이상	합계
26	98	129(5)

주: ()는 무응답

이들 응답기업(총 129개업체)을 대상으로 실시한 經營實態 分析結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進出動機 分析

아래 표에 기술된 對中 投資進出動機에 대해 척도 1~5('고려않함(1)-고려(3)-매우 중시(5)')로 하고 설문 조사한 결과, 현지의 값싼 生産要素를 이용한 生産效率의 提高에 대해 최빈값인 전체응답자의 52.7%가 5('매우 중시')로 응답하였고 평균값도 다른 動機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균값 4.242로 나타나 對中國 投資動機중 '低賃의 勞動力 利用'이 가장 重視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內需市場進出에 대해 최빈값인 전체응답자의 30.2%가 4값(중시함)을 선택하였으며 평균값은 3.430, 기술·노후설비의 수출을 통한 輸出誘發效果는 전체응답자의 33.3%인 최빈값 4에 평균값 3.357, 중국진출 교두보 마련의 경우도 同 34.9%인 최빈값 4에 평균값 3.464로 나타나 저임의 노동력을 이용한 生産效率 確保型 投資외에도 內需市場 確保型 投資動機가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韓國企業의 對中 투자는 주로 生産效率 確保型 投資와 함께 內需市場 確保型 投資의 二重的인 動機에 起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上述한 動機에 대한 각 문항의 결과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低賃勞動力을 이용한 輸出競爭力 確保

低賃의 勞動力을 이용하고자 하는 投資動機에 대해서 전체 응답기업(128) 중 3값(고려)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 수는 117개 기업으로 응답기업의 91.4%

〈표 21〉 對中 投資進出 動機

진 출 등 기	최빈값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129	평균(mean)값
① 저임노동력 이용	5	68	52.7	4.242
② 내수시장 진출	4	39	30.2	3.430
③ 현지의 투자우대조건	3	56	43.4	3.220
④ 현지의 값싼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2	32	24.8	2.829
⑤ 기술(부품) 및 노후설비수출을 통한 수출 유발효과	4	43	33.3	3.357
⑥ 현지의 기술습득	1	44	24.8	2.384
⑦ 경쟁기업들의 중국투자에 대한 대응전략	3	41	31.8	3.389
⑧ 중국의 무역규제장벽 회피	3	40	31.0	2.384
⑨ 본사차원의 범세계적 전략에 따른 거점구축	3	36	27.9	3.228
⑩ 중국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시범투자	4	45	34.9	3.464

〈표 22〉 低賃勞動力을 이용한 投資

척도 및 의미		빈도수	전체 비중(%): 빈도수/129	누락 데이터 값에서의 비중(%): 빈도수/128	누적 백분율
고려않음	1	4	3.1	3.1	3.1%
약간 고려	2	7	5.4	5.5	8.6%
고려	3	11	8.5	8.6	17.2%
중시함	4	38	29.5	29.7	46.9%
매우 중시	5	68	52.7	53.1	100.0%
무응답	*	1	0.8	누락	
합 계		129	100.0	100.0	-

주: 평균(mean)값: 4.242 최빈(mode)값: 5.000

에 달하였으며 그중 ‘중시(4)하거나 매우 중시한다(5)’라고 응답한 기업의 숫자는 106개 업체로 응답기업의 8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內需市場進出

〈표 23〉 內需市場 進出을 위한 投資

데이터 값 및 의미		빈도수	전체 비중(%) :빈도수/129	누락 데이터 값에서의 비중(%) : 빈도수/128	누적 백분율
고려않음	1	10	7.8	7.8	7.8%
약간 고려	2	20	15.5	15.6	23.4%
고려	3	31	24.0	24.2	47.7%
중시함	4	39	30.2	30.5	78.1%
매우 중시	5	28	21.7	21.9	100.0%
무응답	*	1	0.8	누락	
합 계		129	100.0	100.0	-

주: 평균(mean)값: 3.430 최빈(mode)값: 4.000

內需市場 進出에 대한 投資動機에 대해서 응답기업(128)중 3값(고려)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 수는 98개 기업으로 전체 응답자의 76.6%에 달하였으며 그중 ‘중시(4)하거나 또는 매우 중시한다(5)’라고 응답한 기업은 67개 업체로 同 52.4%에 달해, 평균값은 3.430, 최빈값은 4로 집계되었는바, 대

〈표 24〉 投資優待條件 利用을 위한 投資

데이터 값 및 의미		빈도수	전체 비중(%) :빈도수/129	누락 데이터 값에서의 비중(%) : 빈도수/128	누적 백분율
고려않음	1	7	5.4	5.5	5.5%
약간 고려	2	17	13.2	13.4	18.9%
고려	3	56	43.4	44.1	63.0%
중시함	4	35	27.1	27.6	90.6%
매우 중시	5	12	9.3	9.4	100.0%
무응답	*	2	1.6	누락	
합 계		129	100.0	100.0	-

주: 평균(mean)값: 3.220 최빈(mode)값: 3.000

체로 對中 투자시 內需市場進出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現地の 投資優待條件

반면 現지의 投資優待條件 利用을 목적으로 하는 投資動機에 대해서는 44.1%인 56개 기업이 최빈값으로 3값(고려)을 선택하고, 전체 응답자의 평균값은 3.220으로 나타났는바, 現지의 投資優待條件이 對中國 투자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은 되고 있으나 重視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現地の 값싼 原資材의 安定的 供給

〈표 25〉 原資材의 安정적 供給을 위한 投資

데이터 값 및 의미		빈도수	전체 비중(%) :빈도수/129	누락 데이터 값에서의 비중(%): 빈도수/128	누적 백분율
고려않음	1	27	20.9	20.9	20.9%
약간 고려	2	32	24.8	24.8	45.7%
고려	3	24	18.6	18.6	64.3%
중시함	4	28	21.7	21.7	86.0%
매우 중시	5	18	14.0	14.0	100.0%
무응답	*	-	-	-	
합 계		129	100.0	100.0	-

주: 평균(mean)값: 2.829 최빈(mode)값: 2.000

現지의 값싼 원자재의 安定的 供給을 목적으로 한 投資動機의 경우는 전체 기업의 24.8%가 최빈값으로 2(약간 고려)를 선택하였으며 ‘고려하지 않는다’는 1값을 선택한 기업도 전체 기업의 20.9%인 27개 업체에 달하여 평균값이 3값에도 못 미치는 2.829로 나타나 現地の 값싼 원자재의 安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한 투자는 ‘고려 내지는 약간 고려’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技術(部品) 및 老朽設備 輸出을 통한 輸出 誘發效果

〈표 26〉 技術 및 老朽設備의 輸出誘發效果를 위한 投資

데이터 값 및 의미		빈도수	전체 비중(%) :빈도수/129	누락 데이터 값에서의 비중(%) : 빈도수/128	누적 백분율
고려않음	1	9	7.0	7.1	7.1%
약간 고려	2	18	14.0	14.3	21.4%
고려	3	37	28.7	29.4	50.8%
중시함	4	43	33.3	34.1	84.9%
매우 중시	5	19	14.7	15.1	100.0%
무응답	*	3	2.3	누락	
합 계		129	100.0	100.0	-

주: 평균(mean)값: 3.357 최빈(mode)값: 4.000

기술 및 부품, 노후설비 등의 수출을 통한 輸出誘發效果에 대한 投資動機에 대해서 3값 이상을 응답한 기업 수는 99개 기업으로 무응답자를 제외한 전체 응답기업(126)의 78.9%에 달하였으며, 그중 ‘重視(4)하거나 또는 매우重視한다(5)’라고 응답한 기업은 62개 업체로 同 49.2%에 달해, 평균값은 3.357, 최빈값은 4로 나타났는바, 對中 투자시 기술(부품) 및 노후설비수출을 통한 輸出誘發效果가 ‘고려 내지는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現地の 技術習得

對中 투자시 現地の 技術習得을 目的으로 한 投資動機 여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응답기업의 34.6%가 ‘고려치 않음’이라고 응답해 韓國企業의 對中國 투자는 대체로 現地の 技術習得을 目的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체수가 비록 전체 응답업체의 16.3%인 단지 21개 업체에 불과하지만 중국측이 보유하고 있는 技術習得을 ‘중시하거나 매우

중시한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韓·中 간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相互 産業協力에 대한 必要性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지의 신 기술을 이용한 商品製造와 이에 대한 販路開拓이 비교적 용이한 大企業을 중심으로 이같은 목적의 對中國 투자는 향후 더욱 擴大될 전망이다.

〈표 27〉 技術習得을 위한 投資

데이터 값 및 의미		빈도수	전체 비중(%) :빈도수/129	누락 데이터 값에서의 비중(%) : 빈도수/128	누적 백분율
고려않음	1	44	34.1	34.6	34.6%
약간 고려	2	32	24.8	25.2	59.8%
고려	3	30	23.3	23.6	83.5%
중시함	4	17	13.2	13.2	96.9%
매우 중시	5	4	3.1	3.1	100.0%
무응답	*	2	1.6	1.6	
합 계		129	100.0	100.0	-

주: 평균(mean)값: 2.252 최빈(mode)값: 1.000

〈표 28〉 競爭力 弱화를 克服하기 위한 投資

데이터 값 및 의미		빈도수	전체 비중(%) :빈도수/129	누락 데이터 값에서의 비중(%) : 빈도수/128	누적 백분율
고려않음	1	5	3.9	4.0	4.0%
약간 고려	2	20	15.5	15.9	19.8%
고려	3	41	31.8	32.5	52.4%
중시함	4	41	31.8	32.5	84.9%
매우 중시	5	19	14.7	15.1	100.0%
무응답	*	3	2.3	누락	
합 계		129	100.0	100.0	-

주: 평균(mean)값: 3.389 최빈(mode)값: 3.000, 4.000

사. 競爭企業들의 中國投資에 대한 對應戰略

반면 投資動機가 國內의 競爭企業들이 中國에 投資進出함으로써 나타나 競爭力 弱화를 克服하기 위한 目的으로 투자하는 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기업의 32.5%인 41개 기업이 각각 최빈값으로 데이터 값 3과 4를 선택하여 對中 투자시 國內 同種業界의 競爭力도 ‘考慮 내지는 重視’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中國의 貿易規制障壁 回避

이밖에 對中 수출시 발생하는 각종 貿易規制措置의 回避를 목적으로 한 투자동기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응답자의 84.0%가 1~3값을 선택함으로써, 전체 응답자의 평균값은 ‘약간 고려’의 2값을 상회하는 2.384로 나타나 ‘中國의 貿易規制 回避를 目的으로 한 投資’는 對中 투자시 그다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貿易規制措置 回避를 위한 投資

데이터 값 및 의미	빈도수	전체 비중(%) :빈도수/129	누락 데이터 값에서의 비중(%): 빈도수/128	누적 백분율	
고려않음	1	36	27.9	28.8	28.8%
약간 고려	2	29	22.5	23.2	52.0%
고려	3	40	31.0	32.0	84.0%
중시함	4	16	12.4	12.8	96.8%
매우 중시	5	4	3.1	3.2	100.0%
무응답	*	4	3.1	누락	
합 계		129	100.0	100.0	-

주: 평균(mean)값: 2.384 최빈(mode)값: 3.000

자. 本社次元의 Globalization 戰略에 따른 據點構築

〈표 30〉 Globalization을 위한 據點構築을 위한 投資

데이터 값 및 의미		빈도수	전체 비중(%) :빈도수/129	누락 데이터 값에서의 비중(%) : 빈도수/128	누적 백분율
고려않음	1	16	12.4	13.0	13.0%
약간 고려	2	17	13.2	13.8	26.8%
고려	3	36	27.9	29.3	56.1%
중시함	4	31	24.0	25.2	81.3%
매우 중시	5	23	17.8	18.7	100.0%
무응답	*	6	4.7	누락	
합 계		129	100.0	100.0	-

주: 평균(mean)값: 3.228 최빈(mode)값: 3.000

아울러 中國에 투자한 投資動機중 ‘Globalization 戰略側面에서 投資與否’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체 응답기업의 73.2%가 데이터 값 3~5를 선택하였으며 평균값은 3값을 상회하는 3.228로 나타나 韓國企業의 中國投資가 단순한 生産效率 追求만이 아닌 長期的인 측면에서 據點構築의 一環으로 投資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차. 中國進出 橋頭堡 마련을 위한 示範投資

끝으로 投資動機가 ‘中國進出 橋頭堡 確保’를 목적으로 示範投資한 경우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36.0%인 45개 업체가 중시한 것으로 응답하고 데이터 값 3-5 즉, ‘考慮 내지는 매우 重視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수는 전체 응답자의 84.0%에 달하였는바, 현재 示範投資중인 이들 기업들의 經驗이 蓄積될 경우 전체적으로는 投資規模나 投資件數面에 있어서 對中國 투자보다 확대될 수 있음을 예시해 주었다.

〈표 31〉 中國進出 橋頭堡 마련을 위한 示範投資

데이터 값 및 의미		빈도수	전체 비중(%) :빈도수/129	누락 데이터 값에서의 비중(%): 빈도수/128	누적 백분율
고려않음	1	7	5.4	5.6	5.6%
약간 고려	2	13	10.1	10.4	16.0%
고려	3	40	31.0	32.0	48.0%
중시함	4	45	34.9	36.0	84.0%
매우 중시	5	20	15.5	16.0	100.0%
무응답	*	4	3.1	누락	
합 계		129	100.0	100.0	-

주: 평균(mean)값: 3.464 최빈(mode)값: 4.000

2. 分野別 經營實態 調查結果

본 設問調查에서는 現地操業중인 투자업체의 現地環境에 대한 問題點과 現地法人의 事業成果에 대한 滿足度 그리고 現地環境이 經營成果에 미치는 影響 등에 대한 分野別 經營實態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現地環境의 問題點

上記의 문항을 중심으로 현재 조업중인 우리기업들이 現地環境에서 느끼는 隘路事項을 척도 1~5 ‘매우부정(1)-보통(3)-매우동의(5)’를 주고 설문 조사한 결과, 평균값이 4값 ‘동의’ 이상인 문항은 11, 12번 문항으로 현지에서 조업활동중인 우리企業은 ‘現地の 賃賃 外資企業 관련 制度 및 政策의 變化’와 ‘不分明하고 예기치 못한 賦課金과 準租稅性格의 徵收金’에 대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으며 그리고 ‘現採人力의 급속한 賃賃 上昇’에 대해서도 크게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현지 流

通網構築의 어려움, 原副資材의 需給問題, 現採人의 勤務態度, 現지의 이해하기 어려운 商慣習' 등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표 32〉 現地法人이 느끼는 隘路事項

현지법인이 느끼는 애로사항	최빈값 (mode)	최빈 표본 수	구성비(%): 빈도수/129	평균(mean)값
① 원부자재 공급량 변화가 심하고 가격예측이 어려움	5	38	29.5	3.718
② 현지의 원부자재 공급선 물색이 어려움	4	46	35.7	3.711
③ 원부자재 품질 및 납기가 불안정함	4	47	36.4	3.756
④ 현재 인력의 임금상승 속도가 빠름	3	52	40.3	3.977
⑤ 현재인의 근무태도 불량	3	42	32.6	3.589
⑥ 현지 노동시장구조의 난해함	3	58	45.0	3.279
⑦ 현지법인의 생산기술과 현지법인의 기술특성 상이	3	52	40.3	3.421
⑧ 동사와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현지기업이 많음	3	35	26.4	3.110
⑨ 생산제품의 현지시장 수요변화가 심함	3	61	47.3	2.896
⑩ 현지의 상관습을 이해하기 어려움	4	45	34.9	3.586
⑪ 외자기업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변화가 심함	5	52	40.3	4.047
⑫ 준조세성격의 징수금으로 인한 부담가중	5	68	52.7	4.171
⑬ 현지 직판망 구축에 제약이 많음	5	34	26.4	3.743
⑭ 현지 유통망과 협력체제 구축이 어려움	4	37	28.7	3.780

나. 現地法人의 事業成果에 대한 滿足度

아래 문항에 대해서 우리나라 投資企業들이 현지의 事業成果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를 척도 1~5 '매우 불만족(1)-보통(3)-매우 만족(5)'를 주고 설문 조사한 결과, 평균값이 4값 '만족' 이상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4번 문항이 최빈값 4로 나타나 현지에서 操業活動중인 投資企業이 本社의 賣出(또는 輸出)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문항

의 평균값으로 볼 때는 현지법인의 사업성과에 대한 만족도의 평가는 ‘현지에서의 事業本格化를 위한 學習效果’, ‘본사의 賣出額에 寄與’, ‘전반적인 戰略的 投資動機 達成’과 ‘본사의 構造調整 寄與’의 順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수익률이나 매출수익률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보통’인 3값 이하로 다소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現地法人의 事業成果에 대한 滿足度

현지법인의 사업성과	최빈값 (mode)	최빈 표본 수	구성비(%): 빈도수/129	평균(mean)값
① 투자수익률	3.0	62	48.1	2.787
② 매출수익률	3.0	58	45.0	2.802
③ 매출액 증가율	3.0	54	41.9	3.055
④ 본사매출(또는 수출)에의 기여	4.0	45	34.9	3.301
⑤ 본사의 구조조정에 기여	3.0	55	42.6	3.153
⑥ 현지에서 사업본격화를 위한 학습효과	3.0	59	45.7	3.415
⑦ 전반적인 전략적 투자동기 달성	3.0	44	34.1	3.254

한편, 事業成果에 대한 만족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상술한 각 財務的, 非財務的 문항의 데이터 값을 종합·평균하여 ‘現地法人의 經營成果에 대한 滿足度’를 계산하였는바, 이에 대한 統計結果值를 地域別, 操業期間別, 投資規模別, 所有持分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地域別 經營成果에 대한 滿足度

현지 投資企業의 경영성과에 대한 滿足度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별로 東北 3省, 渤海灣 地域, 華中地域, 華南地域 그리고 其他地域으로 구분하여 상술한 항목들을 대상으로 경영성과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ANOVA(analysis of variance: 분산분석)에서는 화중, 화남, 기타지역의 자료가 소수에 불과한 관계로 統計的 信賴性을 조금이라도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을 화중/화남지역으로 일괄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표 34〉 地域別 經營成果 差異(ANOVA)

집단	빈도수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자유도(D.F)	F값	Sig.
동북 3성	23	3.0559	0.6500	2	1.5411	0.2186
발해만	68	3.0546	0.7343	114		
화중/화남	26	3.3242	0.5932			

주: 129개중 누락표본수 12개(9.3%)

본 결과에 따르면 현지 투자기업의 ‘現地法人의 經營成果에 대한 満足度’는 투자지역별로 東北 3省의 경우는 3.0559, 발해만 지역의 경우는 3.0546 그리고 화중/화남지역의 경우에는 3.3242를 나타내고 있어 화중/화남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더 良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값 1.5411 이 유의수준 0.05에 자유도가 2와 114에서 F 분포도의 값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중국의 南部地方에 투자한 企業의 經營成果가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한 것은 改革, 開放의 진전속도의 차이에 따라 투자기업이 직면

〈표 35〉 個別 經營成果에 대한 投資地域別 差異(빈도분석)

투자수익률

집단	빈도수(표본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동북 3성	24(100.0)	2(8.3)	7(29.2)	15(62.5)	3.750
발해만	74(100.0)	13(17.6)	24(32.4)	37(50.0)	3.446
화중/화남	27(100.0)	5(18.5)	9(33.3)	13(48.1)	3.259

주: 1) 데이터 값 ‘1~5값’중 3값은 보통, ‘1~2값’은 불만족, ‘4~5값’은 만족으로 분류하였음.

2) ()는 구성비.

매출액 수익률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동북 3성	25(100.0)	9(36.0)	12(48.0)	4(16.0)	2.560
발해만	74(100.0)	22(28.9)	35(46.1)	17(22.4)	2.811
화중/화남	28(100.0)	8(28.5)	15(53.6)	5(17.8)	2.929

주: 상동

매출액 증가율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동북 3성	25(100.0)	8(32.0)	13(52.0)	4(16.0)	2.680
발해만	73(100.0)	26(34.2)	30(39.5)	17(22.4)	2.767
화중/화남	28(100.0)	6(21.4)	15(53.6)	7(25.0)	3.000

주: 상동

본사 매출(수출)에의 기여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동북 3성	25(100.0)	6(24.0)	9(36.0)	10(40.0)	3.080
발해만	74(100.0)	22(29.8)	33(44.6)	19(25.7)	2.946
화중/화남	28(100.0)	3(10.7)	12(42.9)	13(46.4)	3.321

주: 상동

본사 구조조정예의 기여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동북 3성	24(100.0)	4(16.7)	10(41.7)	10(41.6)	3.292
발해만	72(100.0)	18(25.0)	24(31.6)	30(41.6)	3.167
화중/화남	27(100.0)	1(3.7)	10(37.0)	16(59.2)	3.667

주: 상동

학습효과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동북 3성	25(100.0)	4(16.0)	15(60.0)	6(24.0)	3.080
발해만	72(100.0)	18(25.0)	30(41.7)	24(33.4)	3.056
화중/화남	27(100.0)	3(11.1)	10(37.0)	14(51.8)	3.481

주: 상동

전반적인 전략적 동기 달성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동북 3성	25(100.0)	6(24.0)	12(48.0)	7(28.0)	3.120
발해만	73(100.0)	18(24.7)	25(34.2)	30(41.1)	3.219
화중/화남	28(100.0)	4(14.3)	7(25.0)	17(60.7)	3.464

주: 상동

하고 있는 經營上의 不確實性의 差異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는 推論이 가능하다.

投資地域別 經營成果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經營成果를 구성하는 상기의 일곱 가지 경영성과에 대한 지표를 각각 投資地域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는바, 전술한 경영성과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화중/화남지역이 투자수익률에 대한 만족도만 제외하고 타 지역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났다.

2) 操業期間別 經營成果에 대한 滿足度

對中國 투자기업을 操業期間에 따라 어떠한 經營成果의 差異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ANOVA에서는 操業期間 5년 이상의 경우가 소수에 불과한 관계로 통계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괄하여 통계 처리하였는바, 操業期間에 따른 經營成果의 차이를 ANOVA를 통해 살펴

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6〉 操業期間別 經營成果 差異(ANOVA)

집단	빈도수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자유도(D.F)	F값	Sig.
1년	10	3.0857	0.4528	4 111	3.9131	0.0052
2년	38	2.8271	0.8656			
3년	31	3.1014	0.5669			
4년	23	3.3727	0.4058			
5년 이상	14	3.5102	0.6764			

주: 129개중 누락표본수 13개(10.1%)

對中國 投資企業의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는 ‘現地 法人의 經營成果에 대한 満足度’를 조업기간별로 살펴본 결과, 조업기간이 1년의 경우는 3.0857, 2년은 2.8271, 3년은 3.1014, 4년은 3.3727, 5년 이상은 3.5102로 나타나 조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경영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결과의 F값 3.9191이 유의수

〈표 37〉 個別 經營成果 指標의 操業期間別 差異(빈도분석)

투자수익률

집단	빈도수(표본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1년	11(100.0)	1(9.1)	3(27.3)	7(63.7)	3.636
2년	43(100.0)	6(14.0)	13(30.2)	23(53.5)	3.619
3년	32(100.0)	9(28.1)	7(21.9)	16(50.0)	3.188
4년	23(100.0)	4(17.4)	10(43.5)	9(39.1)	3.261
5년 이상	15(100.0)	-	6(40.0)	9(60.0)	3.800

주: 1) 데이터 값 ‘1~5값’중 3값은 보통, ‘1~2값’은 불만족, ‘4~5값’은 만족으로 분류하였음.

2) ()는 구성비.

매출액 수익률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1년	11(100.0)	4(36.4)	5(45.5)	2(18.2)	2.818
2년	41(100.0)	19(46.3)	18(43.9)	4(9.7)	2.341
3년	33(100.0)	9(27.3)	17(51.5)	7(19.2)	2.848
4년	24(100.0)	5(20.8)	12(50.0)	7(29.2)	3.125
5년 이상	16(100.0)	2(12.5)	8(50.0)	6(37.5)	3.250

주: 상동

매출액 증가율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1년	11(100.0)	4(36.4)	6(54.5)	1(9.1)	2.727
2년	41(100.0)	19(46.3)	14(34.1)	8(19.5)	2.415
3년	33(100.0)	9(27.3)	18(54.5)	6(18.2)	2.879
4년	24(100.0)	5(20.8)	12(50.0)	7(29.2)	3.083
5년 이상	16(100.0)	3(18.8)	7(43.8)	6(37.6)	3.250

주: 상동

본사 매출(수출)에의 기여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1년	11(100.0)	2(18.2)	6(54.5)	3(27.3)	3.091
2년	41(100.0)	17(41.5)	15(36.6)	9(21.9)	2.659
3년	33(100.0)	8(24.2)	16(48.5)	9(27.2)	3.030
4년	24(100.0)	2(8.3)	11(45.8)	11(45.8)	3.458
5년 이상	16(100.0)	2(12.6)	6(37.5)	8(50.1)	3.375

주: 상동

본사 구조조정에 기여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1년	10(100.0)	2(20.0)	6(60.0)	2(20.0)	3.000
2년	41(100.0)	14(34.2)	14(34.1)	13(31.7)	2.878
3년	32(100.0)	4(12.5)	15(46.9)	13(40.6)	3.406
4년	24(100.0)	2(8.3)	4(16.7)	18(75.0)	3.750
5년 이상	14(100.0)	1(7.1)	4(28.6)	9(64.3)	3.714

주: 상동

학습효과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1년	11(100.0)	3(27.3)	8(72.7)	-	2.727
2년	42(100.0)	15(35.7)	15(35.7)	12(28.5)	2.881
3년	32(100.0)	3(9.4)	18(56.3)	11(34.4)	3.313
4년	24(100.0)	2(8.3)	9(37.5)	13(54.2)	3.458
5년 이상	14(100.0)	2(14.3)	4(28.6)	8(57.1)	3.429

주: 상동

전반적인 전략적 동기 달성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1년	11(100.0)	2(18.2)	5(45.5)	4(36.4)	3.364
2년	41(100.0)	14(34.0)	9(22.0)	18(43.9)	3.098
3년	32(100.0)	6(18.8)	14(43.8)	12(37.5)	3.219
4년	24(100.0)	2(8.3)	14(58.3)	8(33.3)	3.250
5년 이상	16(100.0)	4(25.0)	1(6.3)	11(68.8)	3.625

주: 상동

준 0.05에 자유도가 4와 111에서 F 분포도의 값보다 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操業期間과 企業의 經營成果에 대한 滿足度 사이에는 서로 相關關係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업기간별 경영성과의 차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경영성과를 구성하는 일곱 가지 지표를 조업기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3) 投資規模別 經營成果에 대한 滿足度

投資規模에 따라 對中國 投資企業의 經營成果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ANOVA를 통해 살펴보았는바,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8〉 投資規模別 經營成果 差異(ANOVA)

집단	빈도수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자유도(D.F)	F값	Sig.
100만불 미만	59	3.1065	0.6966	4	0.7853	0.5373
100-250만불	21	3.2381	0.6567	103		
251-500만불	16	2.8661	0.6771			
501-1,000만불	10	3.2286	0.7352			
1000만불 이상	2	3.2857	0.8081			

주: 129개중 누락표본수 21개(16.3%)

결과는 본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경영성과가 投資規模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投資規模가 클 수록 經營成果에 대한 滿足도가 클 것'이라는 기대는 입증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규모별 경영성과의 차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일곱 가지의 經營成果 指標가 투자규모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는바, 결과는 전술한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표 39〉 個別 經營成果 指標의 操業期間別 差異(빈도분석)

투자수익률

집단	빈도수(표본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100만불 미만	61(100.0)	12(19.7)	21(34.4)	28(45.9)	3.361
100-250만불	22(100.0)	3(13.6)	7(31.8)	12(54.5)	3.593
251-500만불	18(100.0)	4(22.3)	3(16.7)	11(61.1)	3.331
501-1,000만불	10(100.0)	-	4(40.0)	6(60.0)	3.800
1000만불 이상	3(100.0)	-	1(33.3)	2(66.7)	3.667

주: 1) 데이터 값 '1~5값' 중 3값은 보통, '1~2값'은 불만족, '4~5값'은 만족으로 분류하였음.

2) ()는 구성비.

매출액 수익률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100만불 미만	63(100.0)	19(30.2)	28(44.4)	16(25.4)	2.841
100-250만불	23(100.0)	6(16.1)	12(52.2)	5(21.7)	2.913
251-500만불	17(100.0)	6(35.2)	10(58.8)	1(5.9)	2.529
501-1,000만불	10(100.0)	5(50.0)	3(30.0)	2(20.0)	2.500
1000만불 이상	3(100.0)	1(33.3)	2(66.7)	-	2.667

주: 상동

매출액 증가율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100만불 미만	63(100.0)	21(33.3)	25(39.7)	17(27.0)	2.841
100-250만불	23(100.0)	5(21.7)	11(47.8)	7(30.4)	3.043
251-500만불	17(100.0)	7(41.1)	3(58.8)	-	2.412
501-1,000만불	10(100.0)	3(30.0)	5(50.0)	2(20.0)	2.700
1000만불 이상	3(100.0)	2(33.3)	2(66.7)	-	2.667

주: 상동

본사 매출(수출)에의 기여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100만불 미만	63(100.0)	16(25.4)	23(36.5)	24(38.1)	3.063
100-250만불	23(100.0)	4(17.3)	11(47.8)	8(34.8)	3.217
251-500만불	17(100.0)	5(29.4)	10(58.8)	2(11.8)	2.706
501-1,000만불	10(100.0)	3(30.0)	2(20.0)	5(50.0)	3.300
1000만불 이상	3(100.0)	1(33.3)	1(33.3)	1(33.3)	3.000

주: 상동

본사 구조조정예의 기여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100만불 미만	62(100.0)	11(17.8)	20(32.3)	31(50.0)	3.339
100-250만불	22(100.0)	3(13.6)	10(45.5)	9(40.9)	3.318
251-500만불	17(100.0)	5(29.4)	7(41.2)	5(29.4)	2.941
501-1,000만불	10(100.0)	3(30.0)	1(10.0)	6(60.0)	3.400
1000만불 이상	2(100.0)	-	1(50.0)	1(50.0)	3.500

주: 상동

학습효과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100만불 미만	63(100.0)	13(20.6)	27(42.9)	23(36.5)	3.127
100-250만불	22(100.0)	3(13.6)	13(59.1)	6(27.2)	3.182
251-500만불	18(100.0)	5(27.8)	9(50.0)	4(22.2)	2.889
501-1000만불	10(100.0)	2(20.0)	2(20.0)	6(60.0)	3.400
1000만불 이상	2(100.0)	-	1(33.3)	1(33.3)	4.000

주: 상동

전반적인 전략적 동기 달성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100만불 미만	62(100.0)	16(25.8)	20(31.7)	26(42.0)	3.210
100-250만불	23(100.0)	4(17.3)	8(34.8)	11(47.8)	3.261
251-500만불	18(100.0)	4(22.2)	7(38.9)	7(38.9)	3.222
501-1,000만불	10(100.0)	1(10.0)	5(50.0)	4(40.0)	3.500
1000만불 이상	2(100.0)	-	1(50.0)	1(50.0)	3.500

주: 상동

4) 投資持分別 經營成果에 대한 滿足度

對中國 투자기업의 所有持分을 ‘소수지분(50% 미만), 공동지분(50%), 다수지분(51% 이상 100% 미만), 단독지분(100%)’의 네 가지로 나누어 ANOVA를 통해 經營成果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40〉 所有持分別 經營成果 差異(ANOVA)

집단	빈도수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자유도(D.F)	F값	Sig.
소수지분	9	2.6984	1.0557	3	1.3823	0.2522
공동지분	5	2.9429	0.7326	107		
다수지분	24	3.0655	0.7174			
단독지분	73	3.1781	0.6445			

주: 129개중 누락표본수 18개(14.0%)

상기의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分析結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所有持分別로 對中 投資企業의 經營成果에 대한 滿足度’는 單獨持分(3.1781), 多數持分(3.0655), 共同持分(2.9429), 小數持分(2.6984)의 順으로 나타나 본 설문에 응답한 우리企業의 경우 所有持분이 높을 수록 經營成果에 대한 滿足도는 높게 평가하였다.

所有持分別로 經營성과에 대한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일곱 가지의 經營성과에 대한 측정지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는 바, 전술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으나 投資收益率에 대한 滿足도와 비재무적 經營성과 지표인 ‘學習效果와 全般的인 戰略的 動機의 達成’외에 所有持분이 높을 수록 滿足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個別 經營成果 指標의 所有持分別 差異(빈도분석)

투자수익률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소수지분	10(100.0)	-	3(30.0)	7(70.0)	3.900
공동지분	6(100.0)	-	3(50.0)	3(50.0)	4.000
다수지분	25(100.0)	5(20.0)	5(20.0)	15(60.0)	3.600
단독지분	76(100.0)	14(18.4)	25(32.9)	37(48.7)	3.342

주: 1) 데이터 값 '1~5값' 중 3값은 보통, '1~2값'은 불만족, '4~5값'은 만족으로 분류하였음.

2) ()는 구성비.

매출액 수익률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소수지분	9(100.0)	5(55.5)	3(33.3)	1(11.1)	2.111
공동지분	6(100.0)	3(50.0)	3(50.0)	-	2.333
다수지분	25(100.0)	10(40.0)	10(40.0)	5(20.0)	2.640
단독지분	78(100.0)	21(26.9)	38(48.7)	19(24.4)	2.910

주: 상동

매출액 증가율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소수지분	9(100.0)	6(66.6)	2(22.2)	1(11.1)	2.000
공동지분	6(100.0)	3(50.0)	3(50.0)	-	2.333
다수지분	25(100.0)	9(36.0)	11(44.0)	5(20.0)	2.720
단독지분	78(100.0)	21(26.9)	36(46.2)	21(26.9)	2.936

주: 상동

본사 매출(수출)에의 기여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소수지분	9(100.0)	5(55.5)	2(22.2)	2(22.2)	2.444
공동지분	6(100.0)	3(50.0)	2(33.3)	1(16.7)	2.500
다수지분	25(100.0)	7(28.0)	9(36.0)	9(36.0)	3.040
단독지분	78(100.0)	15(19.2)	35(44.9)	28(35.9)	3.167

주: 상동

본사 구조조정에의 기여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소수지분	10(100.0)	4(40.0)	2(20.0)	4(40.0)	2.800
공동지분	5(100.0)	2(40.0)	-	3(60.0)	3.000
다수지분	24(100.0)	5(20.8)	11(45.8)	8(33.3)	3.125
단독지분	78(100.0)	12(15.6)	27(35.1)	38(29.4)	3.416

주: 상동

학습효과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소수지분	10(100.0)	4(40.0)	4(40.0)	2(20.0)	2.500
공동지분	5(100.0)	1(20.0)	2(20.0)	2(20.0)	3.200
다수지분	25(100.0)	5(20.0)	13(52.0)	7(28.0)	3.120
단독지분	77(100.0)	14(18.1)	33(42.9)	30(39.0)	3.221

주: 상동

전반적인 전략적 동기 달성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소수지분	10(100.0)	3(30.0)	3(30.0)	4(40.0)	3.200
공동지분	5(100.0)	1(20.0)	1(20.0)	4(60.0)	3.400
다수지분	25(100.0)	8(32.2)	6(24.0)	11(44.0)	3.120
단독지분	77(100.0)	15(19.5)	30(39.0)	32(41.6)	3.273

주: 상동

〈표 42〉 所有持分別 經營成果 差異(ANOVA)

집단	빈도수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자유도(D.F)	F값	Sig.
내수지향형	24	2.8631	0.7143	1	4.2886	0.040
수출주도형	88	3.1867	0.6688	110		

주: 129개중 누락표본수 18개(14.0%)

5) 輸出比率別 經營成果 差異

調査對象企業의 輸出比率을 70% 이상의 輸出主導型 企業과 70% 이내의 內需指向型 企業으로 나누어 ANOVA를 통해 經營成果에 대한 差異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輸出比率에 관계없이 대체로 經營成果에 대한 滿足度는 데이터값 3값인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어 內需指向型이나 輸出主導型 企業의 滿足度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分析結果에서처럼 수출비율이 높은 輸出主導型 기업이 經營성과에 대한 절대적인 滿足度가 內需指向型 投資企業보다 높게 나타났는바, 이는 유의수준 0.05에 자유도 1과 110에서 F값 4.2886이 F 분포도의 값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수출비율이 높은 輸出企業이 經營成果에 대한 滿足度가 內需志向型 투자기업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비율에 따른 經營성과의 차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經營성과를 구성하고 있는 일곱 가지의 經營성과에 대한 지표가 輸出比率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표 43〉 개별 경영성과 지표의 수출비율별 차이(빈도분석)

투자수익률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내수지향형	26(100.0)	4(15.3)	6(23.1)	16(61.5)	3.692
수출지향형	94(100.0)	14(14.9)	33(35.1)	47(50.0)	3.415

주: 1) 데이터 값 '1~5값'중 3값은 보통 '1~2값'은 불만족, '4~5값'은 만족으로 분류하였음.

2) ()는 구성비.

매출액 수익률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내수지향형	26(100.0)	12(46.1)	13(50.0)	1(3.8)	2.385
수출지향형	96(100.0)	26(27.1)	45(46.9)	25(26.0)	2.906

주: 상동

매출액 증가율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내수지향형	26(100.0)	11(32.1)	12(73.1)	3(11.5)	2.538
수출지향형	95(100.0)	27(28.4)	44(46.3)	24(25.3)	2.884

주: 상동

본사 매출(수출)에의 기여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내수지향형	26(100.0)	10(38.4)	9(34.6)	7(26.9)	2.769
수출지향형	96(100.0)	19(19.8)	42(43.8)	35(36.5)	3.167

주: 상동

본사 구조조정예의 기여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내수지향형	24(100.0)	10(25.0)	7(29.2)	7(29.1)	2.792
수출지향형	94(100.0)	12(12.8)	35(37.2)	47(50.0)	3.426

주: 상동

학습효과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내수지향형	26(100.0)	10(26.9)	12(46.2)	4(15.3)	2.692
수출지향형	93(100.0)	14(15.1)	43(46.2)	36(38.7)	3.258

주: 상동

전반적인 전략적 동기달성

집단	빈도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내수지향형	26(100.0)	9(34.6)	7(26.9)	10(38.4)	3.115
수출지향형	95(100.0)	18(19.0)	36(37.9)	41(43.1)	3.274

주: 상동

다. 現地法人의 環境이 經營成果에 미치는 影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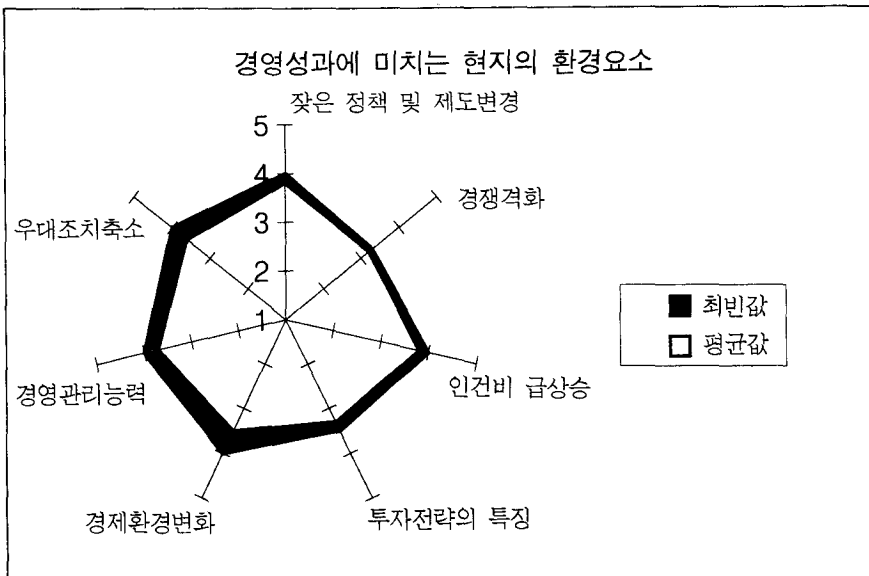
지금까지 上述한 내용은 현재 操業중인 投資企業을 대상으로 財務的, 非財務的 經營成果에 대해 地域別, 操業期間別, 投資規模別, 投資持分別, 輸出比率別로 분석한 결과였다. 現地法人의 環境이 經營成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上述한 문항에 대해 데이터값 1~5 '영향 없다(1)-다소 있다(3)-절대적이다(5)'를 주고 설문 조사한 결과, 평균값이 4값 '영향 크다' 이상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2번 문항과 4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모두

〈표 44〉 現地の 環境이 經營成果에 미치는 影響

현지법인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환경적 요소	최빈값(mode)	최빈 표본 수	구성비(%): 빈도수/129	평균(mean)값
① 중국의 잦은 정책 및 제도변경	4	76	58.9	3.766
② 중국시장에서의 경쟁격화	3	51	39.5	3.278
③ 인건비 급상승	4	52	40.3	3.760
④ 투자방식, 지역, 업종 등 투자전략의 특징	3	60	46.5	3.409
⑤ 중국의 경제환경변화	4	63	48.8	3.574
⑥ 현지법인의 경영관리 능력	4	58	45.0	3.876
⑦ 중국정부의 우대조치 축소	4	61	47.3	3.597

최빈값 4로 나타났다. 그중 6번의 '現地法人의 經營管理 能力'에 대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 모두가 中國側의 投資環境要因인바, 우리나라 기업이 갖고 있는 特徵的 要因보다는 中國側이 갖고 있는 現地の 投資環境



이 現地法人의 經營成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문항의 평균값으로 볼 때는 ‘現地法人의 經營管理 能力’이 무엇보다 現地投資業體의 經營成果에 가장 큰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現地の 投資環境에 앞서 進出業體 자체의 經營能力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IV. 對中投資의 問題點

앞장에서 살펴본 對中國 투자기업의 經營實態 조사결과처럼 中國의 投資環境과 投資企業의 特徵(조업시기, 투자규모, 소유지분 등)에 따라 投資企業의 經營成果는 다양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根本的인 원인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 問題點(또는 特徵)에서 기인하고 있는바, 하나는 對中投資와 直接的으로 관련있는 中國側의 投資環境에서 나타나는 問題點이고, 또 다른 하나는 中國에 진출하고 있는 投資企業의 投資行態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問題點(또는 特徵)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投資環境에서 나타나는 問題點

가. 一般的인 制約要因

1) 中國政府의 經營干涉

中國政府의 外資企業에 대한 干涉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僱傭, 解雇 및 賃金에 대한 干涉, 勞務管理에 대한 干涉, 企業經營成果에 대한 干涉, 다양한 料金이나 手數料 徵收 등이 그것이다.

僱傭 解雇 및 賃金에 대한 간섭은 대부분 진출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로서 고용의 경우 관할 행정구역내의 인력을 먼저 채용토록 하거나 人事請託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고의 경우에는 때로 해고자제 압력을 넣거나 특정인의 해고를 채고토록 압력을 넣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賃金에 대해서는 相反된 두 가지 압력이 있는데, 우리기업들의 경우는 賃金 引上壓力을 받는 반면 미국계 기업들은 賃金 引上 自制壓力을 받고 있다. 前者의 경우는 輸出中心의 勞動集約型 輕工業이라는 점에서 임금수준에

민감한 업종인 반면 後者は 주로 內需市場型 技術集約的 業種으로 고능력 고임금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國營部門의 人力流出과 相對的 衡平性의 問題가 정치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勞務管理에 대한 간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現地政府의 노동당국이 外資企業의 勞動組合을 掌握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노동조합 구성을 해당기업 직공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외자기업이 주도적으로 조직해 주도록 외자기업측에 요구하거나, 노조위원장을 當局이 派遣 혹은 選任하는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干涉 가운데 하나가 經營成果에 대한 判斷을 중국 현지정부의 關聯부문이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경영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그 適法性 등을 評價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稅務局에서 직접 일정기간의 企業會計資料를 수집해 가서는 利益發生與否를 판단해 버리는 식이다. 이같은 사례는 중국남부와 북부의 합자 및 독자기업으로 진출한 우리나라 企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는 外國企業의 企業所得稅 關聯規定이 소득세 감면조건을 이익이 발생한 해로부터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자기업들이 利益發生年度를 意圖的으로 늦추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각종 贊助金이나 手數料 징수도 투자기업들의 사례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된다. 첫째는 中國의 國營 및 集體企業들이 慣例的으로나 構造的으로 각종 準租稅를 부담하고 있어 이러한 관행이 外資企業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와 둘째로 일부 중국관티들의 不正腐敗 現狀에서 비롯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美國이나 日本係 기업들의 경우 공개적으로 拒否感을 보이는 반면, 우리기업의 경우 오히려 현지 사정에 어두운 相對的 不利點을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補充하거나 이를 肯定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국내의 여건과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큰 拒否感없이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기도 하다.⁷⁾

2) 中國勞動市場의 停滯性

중국의 勞動市場은 政策과 制度에 의해 그 이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바, 이같은 노동시장의 停滯性은 戶口制度와 檔案制度 및 差別的인 人事就業制度 등의 制度的 制約裝置에서 비롯한 것이다.

戶口制度는 우리의 住民登錄制度和 유사한 것으로 都市戶口와 農村戶口로 분류되며, 도시와 농촌은 물론 도시와 도시 사이에서도 戶口의 移轉이 엄격하게 制限된다.

檔案이란 중국특유의 身分管理制度로서 所屬機關이나 職場에서 보관하는 일종의 身分調書같은 것으로 이 당안은 중학교 입학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생을 따라 다니게 되는데 입시, 취직, 전직, 승진, 유학시 중요한 역할을 하며 所屬機關의 人事部門이 관리한다.⁸⁾

人事就業制度는 두 가지 制度로 차별화되어 있는데, 일반 노동자 농민과 고등교육을 받은 사무직 화이트칼라인 간부직으로 나뉜다. 前者는 勞動部가 관리하고 後者는 人事部가 관리하고 있어 管理制度 自體를 差別化하고 있다.

이러한 制度는 地域間 移動(戶口이동)과 企業間 移動(檔案이동)을 原則의으로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身分變化에 대한 危險(중국의 人事就業制度에서의 이탈) 때문에 간부직이나 경력직이 이동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住宅을 포함한 社會福祉施設을 소속기관이 부담하는 制度도 勞動力의 移動을 制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制度的 特性에서 나타나는 商慣行의 差異

소위 中國式 商慣行은 정의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나 商慣行의 차이는

7) 백권호, 『투자사례로 본 대중국 투자전략』, 1992. 12, KIEP

8) 당안에는 개인의 일반경력 사항에 민족, 출신성분, 본인성분(소속계급), 소속정당, 사회관계(직계친족, 친구관계), 해외관계(해외화교, 외국인관계) 등이 속속들이 기재되고 있으며 본인은 볼 수 없다.

內需市場 進出戰略은 물론이고 중국기업과 거래를 하는데 가장 核心的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은 최근 市場化와 流通部門의 改革으로 通常的인 市場去來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生産者와 供給者, 生産者와 流通業者, 그리고 流通業者와 流通業者 사이의 거래는 여전히 關係的 去來의 특성이 지배적이고, 계약취소 및 불이행, 미수금사태 등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 따라서는 同種業者들이 外資企業에 대해 談合하여 原料調達 등을 방해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통적인 상관행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데다가 經營請負制에 의한 獨立採算制가 유통부문에까지 보편화되면서 短期的 成果中心의 利己的 企業行動이 사회적으로 容認되고 있고, 環境變化에 適應치 못하는 유통기관들이 물품인수를 거부하거나 재고부담을 생산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4) 情報시스템의 閉鎖性

中國의 관련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은 마치 양과겹질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바, 중국의 바깥에서 보는 것, 일단 투자를 해서 알게되는 것, 그리고 점차 人脈關係를 형성해 가면서 알게 되는 것 사이의 情報價値의 乖離는 생각보다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비즈니스가 홍콩과 海外華僑를 비롯하여 일종의 사회조직같은 無形의 그룹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정보 시스템의 주요 內部者와 직접적인 의사소통 통로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競爭力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閉鎖性은 위에서 언급한 商慣行 등과 함께 中國投資環境의 不確實性을 증폭시키는 主要要因이 되고 있다.

나. 市場進入에 대한 制約要因

中國의 內需市場 保護메커니즘은 直接的인 手段과 間接的인 手段으로

구분되는 多段階의 特性을 지니고 있는바, 직접적인 수단은 認許可權에 의한 내수시장 진출통제를 들 수 있다. 認許可 段階에서 외국측이 제안하는 投資方式과 導入技術水準 및 現地化 程度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內需市場 參與(혹은 수출의무비율)程度를 결정하거나 투자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외국측이 요구하는 內需市場 開放程度에 따라 반대급부로 이에 상응하는 특정한 投資方式이나 移轉技術水準 혹은 條件 그리고 現地化 程度 등을 높게 요구하기도 한다. 즉, 외자기업에 대한 내수시장 개방도가 크면 클수록 기술도입조건을 까다롭게 요구하거나, 聯關效果를 極大化하는 방안으로 외자기업들이 현지조달 비율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70%이상 수출을 목표로 하고 중국측에서 먼저 제안하는 사업이 아닌 外國企業이 獨自의으로 構想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0% 所有하는 獨資企業이 인정되나, 30%이상의 內需市場 開放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정부가 中國의 國內企業과 合資나 合作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外資企業이 진출한 이후에는 事後管理 次元에서 輸出을 유도하거나 現地化 比率를 가능한 한 증대시키도록 요구함으로써 間接的으로 內需市場을 保護하고 있다.

中國의 一般的인 內需市場의 進入障壁⁹⁾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流通部門 進入에 관한 制限

가) 流通業에 대한 直接投資制限

중국은 현재 소비재 內需市場進入에 있어서 아래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地域制限(중국내 11개 都市로 제한), 進入業種 制限(小賣業만 許容, 都小賣業 兼業不許), 投資方式制限(單獨投資 不許, 합자·합작경영기업만 허가), 認可業體數 制限(동일 都市內 백화점 합자업체수는 最多 2개로 제

9) 김익수, 『중국내수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진입·유통장벽』, KIEP, 1995. 5

한) 등의 제한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地域적으로는 3개 直轄市(上海, 北京, 天津), 5개 經濟特區(深圳, 珠海, 汕頭, 廈門, 海南島), 3개 實驗都市(廣州, 青島, 大連) 등 11개 都市에서만 中外合資·合作으로 最多 2個의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설립을 制限적으로 許容하고 있다.

〈표 43〉 中國消費財 工產品 內需市場에 대한 進入障壁

1. 기존 외국기업의 내수시장 판매에 대한 진입장벽

- (1) 국가장려업종(하이테크, 인프라, 국내 공급부족의 수입대체품목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외자기업
- (2) 시제품 생산단계에서 정상생산단계에 들어갔을 경우: 내수판매비율이 축소됨.

2. 외국기업의 유통업 진출에 관한 진입장벽

- (1) 地域制限: 중국내 11개 도시지역으로 제한
- (2) 業種制限: 소매업만 허용, 도소매업 겸업불허
- (3) 投資方式 制限: 단독투자는 불허, 합자·합작경영기업만 허가
- (4) 認可業體數 制限: 동일도시내 백화점 합자투자업체수는 최대 2개로 제한
- (5) 外換平衡 制限: 내수판매로 획득한 인민폐의 달러화로의 환전 불허; 반드시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환으로 결제. 송금토록 제한하고 있음.

자료: 김익수, 『중국내수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진입·유통장벽』, KIEP(1995. 5), p. 118.

그러나 이같은 進入制限은 1994년 6월 이후 점차 選別的·段階적으로 緩和趨勢를 보이고 있는바, 실제로 福建省 福州, 湖北省 武漢, 四川省 成都 등 일부 地方都市에서는 百貨店이 아닌 一般商街 형태로 外國人이 小賣商店 개설을 신청할 경우, 事案別로 이를 許容해 주고 있으며, 100% 單獨投資에 의한 小賣外資企業의 설립도 사례별로 許容하기 시작하였다.¹⁰⁾

10) 이같은 規制緩和 政策에 힘입어 일본의 대형유통업체인 다이에社와 일본의 니찌이社는 中國政府로부터 100% 單獨投資形態의 小賣業 許可를 받았는데, 니찌이사는 大連에 1996년중 『마이칼대련 유행공사』라는 백화점을 개점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일본 최대 소매업 체인 다이에社는 中國全域에 小賣 체인을 개설할 수 있는 소매업 인가를 받았는데, 우선 중국 국내무역부 산하의 소매기업인 友宜服務集團公司와 합자로 상해시에 제1호 합자백화점을 복합

특히 都賣業의 進入制限을 일부 西方企業에게 選別的으로 緩和해 주고 있는 바, Inchcape JDH China Ltd.라는 유통회사의 경우 1993년 上海浦東開發區에 외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100% 單獨投資로 都賣會社를 설립하였고, 홍콩의 Tiger Enterprise라는 홍콩의 기성복 의류 및 약세사리 전문판매회사도 廣東省에 合資會社를 세워 都賣業에 진출하였다. 또한 상해시 정부는 1994년 2월 2개의 외국기업에 대해 合資形態로 都賣 및 倉庫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는데, 그중 하나가 태국의 Zhengda Group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內需市場에 대한 進入制限의 緩和은 어디까지나 地方政府가 '外資企業의 都賣業 禁止에 관한 中央政府의 지침을 非公式的 경로를 통해서 特惠的·選別的으로 완화한 것이므로 中國政府의 政策的 制度의 制限이 근본적으로 解除·緩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既存 外資企業의 流通部門 進入에 대한 制限

製造業에 종사하는 외자기업은 별도의 流通業 및 貿易業 許可가 없는 한, 專賣目的으로 타사제품을 수입해서 중국내 다른 외자기업이나 시장에 직판할 수 없다. 즉 輸出入許可를 따로 받지 않는 한, 本社제품이라 할지라도 수입판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단지 자사제품의 생산·수출과 관련된 원부자재와 반제품만 수입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輸出入許可를 받았다 할지라도 輸入總額은 年間 매출액의 30~50%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¹¹⁾

쇼핑센터 형식으로 개설하는 등 종합 슈퍼마켓과 편의점 사업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11) 그러나 이같은 제한은 법규의 자의적 해석이 팽배한 중국시장에서는 우회될과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많은 일본·대만·홍콩기업들은 지방정부와의 시(關係)나 편법(變通)을 동원하여, 현지 제조업체를 통해 일정 비율의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고, 다만 공상세 납부와 관련하여 현지 유통기업과 은밀한 뒷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로 일본 야오항 국제그룹이 북경에 설립한 합자 백화점 賽特購物中心이나 독일의 루프탄자가 대우와 합자하여 세운 燕莎友宜商場, 중국의 매출액 1위를 자랑하는 상해 第一百貨店 등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중에는 외자기업 생산품, 정식수입품 이외에도, 외국업체와 중국유통대행업

2) 外資 小賣企業 經營·販賣上의 障壁

가) 合資·合作파트너에 대한 情報不足

우선 백화점, 종합상점 등 小賣業의 경우, 合資 내지는 合作形式의 진출 비중이 높는데 합자·합작파트너의 주관 행정부문, 소유형태, 재무상태, 신용도, 지방정부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정보의 부족이 가장 큰 제약이 되고 있다. 또한 장기간 缺乏經濟(shortage economy)하에 있었기 때문에 市場經濟에서 통용되는 ‘顧客의 滿足’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 방침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유통기업간의 구조적인 연대나 협조도 원활하지 못하다.

나) 法規의 未備와 透明性 不足

中國은 현재 外資企業의 內需市場 進入에 관한 법규를 보완해 가는 과정에 있기는 하나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즉 외자기업에게는 100% 單獨投資形態의 小賣業 進入과 地域制限을 뛰어넘는 全國的인 小賣業 許可는 原則적으로 禁止되어 있으나, 일부지방의 경우 특별히 허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결국 外資企業의 內需市場 進入에 관한 中央政府와 地方政府의 理解關係가 다르고, 法規의 施行과 解釋에 있어 透明性, 一貫性, 明瞭性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 複雜하고 官僚的인 價格·流通構造

中國은 價格·流通構造가 복잡하여 이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는 많은 經驗과 時間이 요구된다. 특히 실제 판매시 부딪치는 外換收支 均衡의 필요, 販賣貸金回收의 곤란, 代理店·特約店 選定의 어려움, 市場 및 販促에 관한 정보부족, 다른 외국기업과의 치열한 價格 및 品質競爭 등 실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 對應方案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많은 현지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품을 도·소매상을 통해 중국시장에 委託販賣하고 있는데, 중국측이 ‘대금을 제때에 100% 결제해 주지 않

체간의 밀약에 의해서 수입된 외제품들이 상당량에 달하고 있다.

고 分割決濟, 部分決濟, 外賞去來하는 사례가 많아 완전한 대금회수에 6개월~1년여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밖에 팔리지 않은 在庫商品에 대해서는 중국측이 50~70%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委託販賣의 경우, 믿을 만한 受託者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금회수, 재고처리 및 운전자금관리 등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라) 果實送金上の 制限

중국정부는 내수판매로 획득한 人民幣를 달러화로 직접 환전하여 送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小賣業에 종사하는 외자기업은 획득한 인민폐로 中國商品을 購入하거나 또는 輸出을 통해 획득한 외환으로 決濟·送金할 수밖에 없는데, 이같은 制限이 유통부문에 종사하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압박하여 中國內需市場에 進入하려는 外資企業에게 障礙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 落後된 輸送·通信 인프라

수송, 물류, 통신 등 유통관련 서비스 인프라의 落後性도 外資企業의 內需市場進入과 市場擴大를 阻害하는 障礙要因이 되고 있다. 이와관련 중국은 8.5기간(1991~1995년)동안 총 920억원의 基本建設投資(국유부문에 대한 일종의 신설비투자)를 計上해 놓고, 지난 1991~1994년 기간동안 약 780억원을 이미 투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에 대한 投資增加率이 고속성장에 따른 輸送需要 增加率에 크게 못미쳐 철도수송적체가 매우 심한 편이며, 원자재와 상품의 東西(연해-내륙) 및 남북간의 流通이 障礙를 받고 있다. 外資企業 역시 중국 中西部 내륙의 內需市場을 개척하려 해도 수송·통신 인프라가 劣惡해 실질적인 진출이 미흡한 상태이다.

바) 높은 物流費用과 輸送중의 盜難·紛失·變質

수송·통신인프라의 낙후성과 깊은 연관을 갖지만 중국의 경우 沿海-內陸간 수송 및 都市間 유통의 물류비용이 높아, 中國市場 진출·확대의 自然的인 進入障壁이 되고 있다. 예컨대 廣東省에서 2,000元인 가전제품을

북경으로 수송·판매할 경우 운송비와 물류비용으로 인해 가격이 2,700~2,800元으로 상승한다. 더욱이 1990년대 들어서는 地方의 治安이 약화되어 수송중에 紛失되거나 盜難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保險制度가 未備되어 있어 보상받을 길이 없으므로 미리 수송중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수송상의 문제로 인해 상품광고, 출고 및 선적, 판매지 도착, 판매시점간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으므로, 화물적체, 보관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제품출고시기를 많이 앞당겨야 하고, 하절기에는 식품, 의약품의 경우 수송과정중의 변질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 代理人을 통한 消費財 委託販賣의 限界

內需市場販賣時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합자파트너의 도움인바, 합자파트너의 人脈關係가 부족하거나 유통회사와의 네트워킹이 약할 경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자기업의 대부분은 국유유통기업, 구입판매합작사(供銷合作社), 개인회사 등 중국내 대리인을 통해 생산품을 內需市場에 委託販賣하게 되는데, 중국의 경우 合理的인 信用評價基準이나 전문적인 信用評價機關이 없어 대리인의 信用度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國有流通企業과 개인 流通代理人 사이에 행태가 달라 이에 대한 차별적인 적응이 필요하다. 즉, 國有企業의 경우 도산이나 부도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하부소매상의 대금회수나 신용상태에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물건을 공급하는 경향이 있어 資金回收上의 신속성이 떨어진 다. 반면 中小流通代理人들이나 個人流通企業은 대금회수에 적극적이고 일에도 열성적이나, 不渡·倒産의 위험이 크고 유통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해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곤란을 겪을 수가 있다. 실제로 많은 개인 유통업자들이 상품과 대금을 함께 챙겨 잠적하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제도적 여건이 미비하고 중국대륙이 워낙 넓어 이들을 찾아 고소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상술한 바와 같은 中國의 內需市場 進入制限과 관련하여 지난 1996년 3월 중국정부는 中國韓國商會를 통해 韓國企業을 대상으로 內需

〈표 45〉 한국기업의 내수시장 진출애로

설문내용	청도 한국경제인협회	진황도 S유한공사	상해 J사
생산품의 판매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판매 및 백화점, 전문상점에 위탁판매 - 중간상에 위탁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경, 천진 및 상해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 기타지역은 판매점을 통해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 및 전문상점에 위탁판매
판매활동상의 애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일부 품질이 우수한 원부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높은 관세와 증치세가 부과되어 국내제품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직영판매점을 개설할 경우 상점의 임대료가 너무 높음. - 특히 외국기업에 임대하는 사무실 상점의 임대료는 실제 임대료보다 매우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제품의 도방품이 시판되고 있어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연한 리베이트의 요구로 인해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상해시의 경우 외지상품의 유입이 많고 외지에 비해 원부자재의 가격이 높은 편임.
문제점 및 개선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계상 또는 백화점 등에 위탁판매할 경우 대개 외상으로 물건을 제공하게 되는바, 차후 물건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거래의 위험이 매우 높음. - 특히 거래상의 신용도 어려워 위탁판매시 위험부담이 큼. - 인프라의 낙후로 인해 배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장이나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정확한 판매전략을 세우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판매점형태는 크게 국영점과 사영점으로 구분되고 있는바, 유사시 국영점은 법적조치가 취해질 경우 채권확보가 가능하지만 사영점의 경우는 도산처리후 잠적하면 현실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는바, 이같은 불량판매점에 대한 사후 법적 조치가 필요함. - 운송중 제품손상 및 납기 지연등이 발생하는바, 관련 보험제도의 보완 및 면료성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운송과 관련하여 통행증에 대한 규제로 인해 배송시 잦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제조사의 화물차량에 대해 통행규제 완화가 요구됨.

市場 進出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① 生産品의 중국내 販賣 經路 ② 中國內 販賣活動上의 隘路點 ③ 流通關聯 政策의 問題點과 改善 方向 등에 대해 설문·조사하였는바, 중국시장에서 우리기업이 느끼고 있는 內需市場進出上의 主要問題點을 간추리면 <표 45>와 같다.

2. 投資行態에서 나타나는 問題點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企業들의 對中國 投資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集中現象 즉, 勞動集約 위주의 生産效率 追求型 投資, 渤海灣과 東北 3省에서의 集中現象, 獨資企業의 選好 등은 많은 問題點을 발생시키고 있다.

우선 對中國 投資가 勞動集約的 製造業 중심의 生産效率追求型 投資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들 투자가 그 目標市場을 주로 미국과 한국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미국과 중국과의 通商摩擦時 우리나라의 對中國 投資기업들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貿易報復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對中國 投資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상당부분이 國內로 逆輸入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國內産業의 空洞化 現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신발, 섬유 등의 업종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또한 노동집약적 제조업중심의 對中投資는 同種業種의 국내기업에의 타격과 함께, 直接投資에 수반되는 技術移轉으로 인한 부메랑 효과로 國際市場에서 低價製品을 중심으로 중국의 市場蠶食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世界化라는 市場의 環境變化에서 부메랑효과의 중요성이 과거만큼 크게 평가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企業의 對中國 投資에서 수반되는 技術移轉이 그 댓가로 현지시장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深刻性이 있다.

한편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對中國 投資는 그 業種의 특성에서 나

타나는 바와 같이 中國市場에 대한 經驗이 거의 없는 中小企業 爲主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우리企業들의 경우 대부분이 中國의 上관습, 유통체제, 투자관련제도와 법규 등에 대한 精確한 事前知識의 축적이나 投資事業에 대한 철저한 妥當性調査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어 투자실행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과다한 정보수집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의 對中國 投資가 한정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中國市場이 가지고 있는 立地特有的 優位要素를 향유하는 데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對中投資의 지역별 集中現狀은 정보비용과 투자비용 및 간접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것이 中國의 사회·경제적 제도나 특성과 만나면서 최근에는 외자기업간의 과당경쟁으로 오히려 直接費用이 增加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토지 및 임대료의 상승폭이 커질 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으며, 노동력의 이동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인력 스카우트를 둘러싸고 불화를 빚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임금경쟁 문제가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對中國 投資에서 독자기업 형태를 選好하고, 多數持分을 통한 강한 統制力을 追求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지 파트너와의 바람직한 관계설정뿐만 아니라 現地制度의 잦은 變更과 不明確性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제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合資企業의 경우, 中國측 파트너는 소유지분의 크기와 관계없이 기업통제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이고 있어 외국측 파트너와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고용, 인사, 임금, 재무관리, 제품가격결정 등의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人事와 財務管理가 기업의 실제로 통제하는 核心部門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制度的으로는 合資企業의 경우 出資比率에 따라 理事會를 구성하되 통상 主要事案에 대

해서는 滿場一致의 의사결정 방법을 채택하게 되기 때문에 출자비율이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지 제도에 대한 완벽한 이해없이 獨資企業을 선호하고 있어 각 지방마다 상이한 법규해석을 둘러싸고 현지정부와 잦은 摩擦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같은 制度의 變化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있는 민원 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관조직들이 외국인 기업에 대한 별도규정이나 지침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설령 있더라도 이들을 위한 서비스의 기회가 많지 않아 독자기업으로서는 이같은 업무의 熟知度 및 處理能力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V. 結語: 主要 示唆點 및 向後課題

1. 主要 示唆點

가. 對中投資時 留意事項

1) 事業選定

對中國 투자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측면이 現地에서 운영할 사업의 선정인바, 事業選定時에는 母 기업의 주력사업이 이전하는 關聯事業의 多角化와 異質的인 事業을 運營하는 非關聯事業의 多角化가 있을 수 있다. 附言하면 첫째, 既存事業의 強化 즉, 핵심사업의 가격경쟁력 강화, 재무위험의 감소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主 목적으로 한 生産效率 確保型 投資와 둘째, 現地市場 開拓이나 顧客確保, 原資材 確保를 목표로 한 市場確保型 投資로 분류할 수 있다.

事業選定時 유의해야 할 사항은 지역과 병행해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現지의 사업이 資源確保를 主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조달이 용이한 지역의 선택이 現지사업 성공의 핵심요소인 것과 마찬가지로 內需市場을 攻略하는 事業이라면 現지의 流通網이나 적절한 市場規模를 갖춘 지역에 입지해야 함은 물론 제품의 성격과 품질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운송조건 및 보관, 기타 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現지의 商慣行 등에 대해 철저한 事前調査가 요구된다.

2) 地域選定

지금까지의 對中國 투자는 한국에서 한계에 도달한 限界企業들이 중국의 풍부하고 싼 임금을 이용하려는 다분히 短期的인 動機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단기간내 투자회수라는 목표를 가진 소규모 투자에서

진출지역의 장기적 전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內需市場 攻略 및 전략적 네트워크구축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역 선정에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한 長期的인 展望부터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동북 3성의 경우 重化學工業團地이며 농산물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혁·개방이 가장 늦은 지역으로 聯關産業의 미발달, 輸送의 애로, 大連이외의 輸出港 부재 등으로 인해 투자메리트가 적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임금수준이 아직 저렴하여 소규모 임금절약형 투자의 경우 아직 전망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며, 러시아 및 북한의 국경도시들과 연계되어 있어 邊境貿易과 관련된 하나의 經濟圈으로써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 할 수 있다.

3) 事業性 評價

전반적으로 海外投資의 事業性 評價는 資本回收期間이 주요 評價對象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潛在的 內需市場을 감안할 때 오히려 成長可能性을 고려한 事業性 評價가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즉, 단기간 내에 투자기업에 유입되는 현금흐름뿐만 아니라 內需市場 진출시의 潛在的 成長性을 사업성 평가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중국진출이 국내 母企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투자시 100% 수출 또는 수출후 내수시장 공략, 진출 초기부터 內需市場 確保 등 投資動機에 따른 彈力的인 평가가 필요하다.

4) 파트너 選定 및 契約

파트너 選定基準으로는 파트너의 마케팅 및 유통면에서의 능력이 파트너의 政治的 背景과 資金力 못지 않게 중요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誠實性과 意慾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中國投資經驗에서 성실성과 의욕이 없는 상대를 배경만 보고 파트너로 선택했다가 애를 먹는 경우는 얼

마든지 있다.

계약교섭시 주된 爭點은 外貨平衡, 輸出比率, 중국측 현물 출자 분의 평가, 토지사용료, 기술 노하우료, 합작기간과 합작기간 종료시의 청산방법, 종업원 수와 임금 등인바, 이에 대한 명료한 계약이 요구되며, 특정지역에 대한 입지선정시 중국이 외국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租稅 減免措置와 관련 구체적인 명세에 대한 숙지와 특정지역에 대해 제공되는 각종 인센티브제를 확실히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經濟特區나 沿海開放地域의 경우 외국기업들에 대한 특혜조치의 縮小 可能性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지역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 종업원 고용에 따른 勞動契約 및 勞務管理 등의 조건명시, 즉 노동계약시 현지인의 직접적인 고용가능성과 고용종업원의 해직과 해고문제 등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필요하고 중국측이 출자하는 현물출자분의 평가를 정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제품의 內需와 輸出比率 決定, 토지사용권에 관한 문제, 기술이전에 관한 문제, 계약의 해약과 해산에 관한 문제 등을 협상의 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5) 人事組織 및 勞務管理

최근 對中 투자 韓國企業의 노사분쟁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타 지역에 비해 文化的으로 유사하다는 安堵感으로 인해 한국의 1970년대식 전제적, 강압적 노무관리방식을 무리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勞使分爭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중국노동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중국노동자들은 중국인이라는 자부심이 강하며, 개인주의적 성격이 매우 강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먼저 이러한 특성을 먼저 이해하여 종업원의 체면을 살려주며 규정에 없는 무리한 일은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6) 生産 및 技術管理

현지 進出企業의 經營實態 調查結果에 따르면 生産活動중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중 하나가 勞動者의 勤務姿勢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투자기업은 지속적인 현지교육에 병행하여 모기업으로의 연수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메랑 효과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技術移轉을 늦출 경우 오히려 투자기업이 초기에 現地化를 이룩하는데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인바, 핵심기술을 제외한 일반생산 및 공정기술은 중국 근로자에게 이전시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투자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적극적인 現地化 戰略이 필요하다.

7) 流通構造

流通은 消費財 유통인 商品流通과 産業財 유통인 物資流通으로 나누어 지는데 유통시스템은 개방이후 정부의 통제에서 급격히 벗어나고 있다. 소매상품유통기관은 크게 국영상점 및 사영상점 등이 있다. 도매는 도시별로 대형도매센터, 위탁판매상점 등이 있으나 都賣商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小賣商도 직접 생산업체와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상품유통에 비해 물자유통은 비교적 규제가 심한 편이나, 計劃內에서 생산·분배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計劃外 價格이 計劃內 價格 보다 비싸기 때문에 計劃內 物資가 不法的으로 유출되고 있다.

유통구조상 대금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유통업체들의 농간이 있는 등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이에 대비하여 流通網 開拓에 능력이 있는 파트너의 선정, 중국유통업체와의 합작, 분쟁에 대비한 複數流通채널 確保 등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8) 財務管理

三資企業의 주된 資金調達의 源泉은 중국은행, 중국국제신탁공사(CITIC),

한국을 포함한 외국금융기관, 쌍방의 모기업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중국은행, 모기업(특히 한국측), 한국금융기관 등이다. 자금조달문제는 투자전에 반드시 해결해 두는 것이 중요한바, 사전에 용자를 신청할 은행들과 자신의 투자에 대해 논의해 봄으로써 그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중국측은 운전자금의 조달에 대해 외국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바, 향후 운전자금조달이나 건설비용의 증가로 인해 추가자금조달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상에 중국측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도 명백히 하는 것이 유리하다.

9) 제3국과의 戰略的 提携

제3국과의 戰略的 提携 對象으로 동남아시아의 華僑企業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 單獨으로 진출하는 기업보다 중국에 인맥을 가지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의 華僑와 합작으로 진출시 成功確率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이밖에 日本企業과의 提携도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 일본은 지금까지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나 현재의 정치적 위험 등을 고려해서 中國에 消極的이고 防禦的인 投資를 해왔으나, 최근 일본기업의 對中 투자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일본의 자금력, 기술력 및 정보력에 바탕을 둔 戰略的 提携의 검토가 필요하다.

나. 效率的인 對中投資를 위한 投資戰略

1) 不確實性에 대한 對應

中國에 투자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不確實性에 대한 對應戰略의 연구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중국의 制度的 複雜性에서 비롯되며, 그 핵심은 경제실체간의 교환관계가 經濟論理보다는 政治論理에

의해 결정되는 去來構造의 政治經濟學的 特性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은 정보수집능력과 이해도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바, 이에 대한 解決方法은 첫째, 國家的인 下部構造로서 情報共有體制를 시급히 構築하는 것이고, 둘째는 個別企業次元의 대응전략으로 소위 인맥이나 관계를 통해 다양한 善隣關係를 維持하는 것이고, 세째는 中國政府가 발표하는 각종 정보를 최대한 蒐集·活用하는 것이라 하겠다.

2) 明確한 戰略目標 選定

中國側은 각각 進出目標에 따라 差別的인 政策을 추진하고 있는바, 중국진출시 戰略目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戰略目標은 資源追究型和 市場追求型 그리고 效率追求型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기에 전략목표간의 조합관계로 自然資源 + 人的資源 追求, 自然資源 + 市場追求, 資源追究型 + 效率追究型 등을 상징해 봄으로써 자사의 범주가 어디에 속하는 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效率追求型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업의 내부효율화에만 역점을 두면 되나, 市場追求型의 경우 이보다 세심한 妥當性調査가 요구되고 여기에 현지 資源追求型이 조합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3) 多段階的 進出전략 수립

中國의 投資環境은 실제로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段階的인 進出戰略은 초기에 중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不確實性에 대한 대응으로 매우 效果的이라 하겠다. 특히 첫 단계에서의 成功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환경을 가능한 한 回避할 수 있는 戰略的 代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중국측에 대해 투자기업측의 能力을 證明해 보이는 것이 持續的인 事業推進을 위해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投資事業의 成功確實性을 높이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多段階 進出戰略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4) 철저한 事前調査

對中國 투자에서 妥當性調査는 그 결과가 조업개시후 발생하는 모든 주변환경을 제약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특히 合資의 경우 중국측 파트너가 意向書 段階에서 자기책임하에 현지 정부에 제출하는 妥當性調査報告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통상 이것이 중국측의 책임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않거나 중국측에 일임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은 불확실한 환경에 대해 최대한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적극 利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相對方의 能力을 평가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同 사업에 대한 理解度와 중국정부에 대한 影響力 程度나 소위 ‘관시’ 혹은 人脈程度를 유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중국측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혹은 쌍방이 확실히 해야 할 가장 核心的인 이슈를 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5) 慎重한 契約

契約을 체결하기 위한 協商에 들어가면 가능한 한 慎重하고 치밀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은 信義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文書化한 계약이 별로 중요치않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으나, 실제로는 契約을 無效化시키는 중국인들의 뛰어난 協商力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중국측과 계약을 위한 협상은 첫째, 相對方의 意思決定 매커니즘을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통상 중국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집단적인 성격의 매우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代案을 찾을 것; 중국인은 모순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같지 않더라도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協商팀의 一貫性을 유지할 것; 협상팀의 잦은 변화는 중국측의 협상력을 강화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넷째, 다양한 意思疏通시스템을 公式, 非公式으로 構築할 것; 중국인들

은 다양한 정보전달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협상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다섯째, 關係法律을 최대한 熟知할 것;

여섯째, 單純 協商家와 專門家를 구별·대응할 것 등과 같은 세심한 事前準備가 필요하다.

6) 所有持分과 投資方式의 考慮

우리企業의 경우 環境의인 要因과 企業自體의 能力(기술 및 협상능력) 등으로 인해 동일 환경조건에서도 過多한 所有持分 戰略을 구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同種業界에서 중국에 진출한 홍콩, 대만, 그리고 일본계 기업에 비해 輸出競爭時 더 큰 부담을 안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所有持分の 選擇은 여러 형태의 진출방안 獨資와 合資, 합자형태증에서도 多數持分 또는 50:50, 少數持分 그리고 임가공과 같은 장기계약 방식에 의한 진출가운데 어떠한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戰略的 意思決定의 問題이다. 中國은 일반적으로 합자기업에 대해서 所有持분에 관계없이 강한 統制力을 구사하려 하기 때문에 통제력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자본참여를 최소화할 수 있는 50:50의 投資方式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외국인 기업측에서는 50:50 방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물론 다수지분이라 할지라도 표면적으로는 통제력이 커야 하지만, 관련 법률이나 계약에 근거하여 통제력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

7) 共同協力進出의 摸索

大型商社와 中小製造業體, 大型製造業體와 中小協力業體, 業種別 中小業體 등의 형식으로 공동진출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大型商社의 경우 비교적 중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있고 國

實際인 販賣網도 구축하고 있으나 현지 직접제조는 어렵거나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中小製造業體는 기술력은 있으나 현지정보에 어둡고 해외투자경험이 없기 때문에 投資負擔을 輕減하고 현지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양자가 공동진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相互協力の 메리트가 크다. 大型製造業體와 協力業體의 공동진출의 경우 相關산업의 技術移轉을 內部化할 수 있고 기술의 노출위험도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效率追求와 現地市場 開拓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경쟁력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업종별 中小業體의 共同進出은 規模의 經濟를 이루고 情報의 共有 및 現地政府에 대한 協商力 強化 등의 利點을 들 수 있다.

2. 向後課題

우리企業의 對中國 직접투자는 1989년 이후 勞動集約的 產業에서 단기 성과를 위주로 小規模로 이루어져 왔으며, 地域的으로도 東北 3省, 天津, 靑島 등 環渤海地域에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企業은 앞으로 보다 長期的, 戰略的 眼目에서 中國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즉, 事業選定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노동집약적 사업의 진출을 가급적 지양하고 고부가가치, 고기술, 고품질의 최우수품목을 활용한 자원 및 부품조달의 기지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아울러 하부구조사업, 자원확보사업, 한중산업협력에 따른 기술연합가능업종 등에 中國企業과 戰略的 提携를 늘려야 할 것이다.

地域別로는 지금까지 지리적 근접성, 과거의 연대성, 언어소통의 용이성 등에 의해 선정된 환발해만지역에 치우치지 말고 경제성, 사업성 등에 근거를 둬으로써 上海를 위시한 長江델타지역으로의 진출과 함께 華南地域 및 기타 內陸地域으로의 진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진출형태에 있어서는 모기업의 進出目的(수출 또는 내수)에 부합되는 진입형태를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합자 및 합작의 형태를 취할 경우 현지

파트너의 選定이 직접투자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進出後에는 인사, 조직, 노무관리면에서 文化的 差異와 시장경제에 익숙하지 못한 中國勤勞者들의 行動樣式을 빨리 이해해야 하는바, 무엇보다 한국경영자가 솔선수범하는 마음가짐과 함께 現地化를 통해 해당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지금까지는 外部環境의 變化에 적응하기 위하여 어떻게 중국에 진출할 것인가가 급선무였다면, 이제는 進出한 이후의 安定的 運營과 즉 現地化의 定着이 가장 큰 課題라 할 수 있다.

中國에서의 현지화는 첫째, 중국정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우리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部品調達의 現地化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製品販賣의 現地化로서 중국현지에서의 판매선을 다양화해 나가며 그 토대 위에서 제3국 수출 및 한국으로의 역수출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人才의 現地化로서 본사로부터의 파견인원을 가급적 축소해 가면서 현지의 유능한 사원을 발굴, 중간관리자로서 육성하고 그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동기유발을 꾀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광범위한 사원연수와 인맥에 의한 채용이 아닌 실력있는 인재를 찾기 위한 公開採用方式의 도입 및 產學協同을 위한 연구기금 및 장학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研究開發의 現地化로서 현지시장의 정보를 수집, 경영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현지연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해외 신기술과의 情報交流를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長期的 眼目에서 事業運營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經營管理의 現地化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本社의 통제를 통한 경영방식에서 탈피하고 보다 과감히 海外支社에 대한 權限委讓 및 自律經營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韓國은 産業構造 調整段階를 거치고 있으며 中國은 輸入代替産業 혹은 主力輸出産業의 育成段階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 등 兩國은

基本的으로 産業化의 段階가 상이하기 때문에 양국간 경제교류와 투자방향의 설정 및 확대를 겨냥한 보다 치밀한 전략이 수반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향후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는 국제화라는 대전제하에서 물건, 자금, 사람, 정보(기술 포함) 등의 경영자원을 一方的으로 이전하는 外部指向的 國際化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의 이질적인 문화, 사상, 제도, 인력, 노하우 등을 수용하여 현지활동이 중국 파트너와 중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지역현지화(localization) 전략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向後 韓國의 對中國 투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勞動集約的인 中小規模의 投資에서 점차로 資本·技術集約 投資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規模의 大型化도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내의 각종 사회간접자본 등의 건설부문의 직접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중국정부가 SOC와 관련해서 외국기업에 BOT(build, operate, transfer)방식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바, 이 방면에 우리보다 경험이 풍부한 미국, 일본, 홍콩 등의 기업들이나 IBRD 등 國際金融機關들과 자본, 기술, 설비제공, 시공 등의 분야에서 戰略的 提携의 형태로 同伴進出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의 産業設備의 輸出 促進과 함께 韓·中間 産業協力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인바, 政府次元에서도 이를 위한 각종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企業도 중국의 문화를 비롯한 법제, 제도(현지의 법률, 시장 또는 원자재 조달관련 정보 등) 등 다방면에 걸친 충분한 이해와 현지실정에 대한 정확한 판단능력을 배가하기 위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등의 과감한 投資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자료

- 김시중. 1991.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한국의 진출전망』. 정책연구 91-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시중. 1993. 『대만기업의 중국투자현황과 파급효과』. 정책연구 93-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백권호. 1992. 『투자사례로 본 대중국 투자전략』. 연구보고 92-02. KIEP 지역정보센터.
- 안종석. 1993.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실태와 향후과제』. 조사보고 93-01. KIEP 지역정보센터.
- 안종석. 1994. 『대중국 한국 투자기업의 경영실태분석』. 조사보고 94-03. KIEP 지역정보센터.
- 김익수. 1995. 『중국내수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진입 유통장벽』. 정책연구 95-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익수. 1993. 『일본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향과 전략』. 정책연구 93-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IEP. 1994. 『중국편람』.
- 청도 총영사관.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의 활동현황과 과제』. 1995. 10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국투자사례분석』. 자료 96-4
- 쌍용경제연구소. 『중국의 외국인투자사례분석』. 연구조사 97-03
- 한국무역협회. 『대중국 교역 및 투자안내』. 1996. 10
- KOTRA. 『중국투자실무가이드』. 무공자료 96-32
- JETRO. 『중국경제』. 1994. 10
- 대만경제부. 『통계월보』. 각년호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1997
- 『중국통계연감』. 각년호
- 『대외경제무역연감』. 각년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發刊目錄

■ 政策研究

- | | |
|---|--|
| <p>90-01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金學洙</p> <p>90-02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的 變化/閔充基</p> <p>90-03 換率制度和 外換危險管理/金宗萬</p> <p>90-04 우루과이라운드 知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孫讚鉉</p> <p>90-05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戰略/金泰俊</p> <p>90-06 ASEAN 主要國의 貿易·產業政策和 投資環境變化/柳在元</p> <p>90-07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 方案/金學洙</p> <p>90-08 美國通商政策的 中長期方向/金南斗</p> <p>90-09 多者間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產業의 國際化/張義泰</p> <p>90-10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戰略/徐相祿</p> <p>91-01 美日經濟摩擦과 우리의 政策課題/姜興求</p> <p>91-02 主要換率變動의 特性과 政策示唆點/金宗萬</p> <p>91-03 EC 貿易構造의 變化/金廷洙</p> <p>91-04 美國金融市場의 構造와 規制制度/李長榮</p> <p>91-05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吳勇錫</p> <p>91-06 蘇聯의 對外貿易 및 金融制度的 改革/朴濟勳</p> <p>91-07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p> | <p>進出展望/金時中</p> <p>91-08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李相學</p> <p>91-09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 關係分析/曹琮和</p> <p>91-10 EC의 直接投資 環境變化和 對應方案/閔充基</p> <p>91-11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金學洙</p> <p>91-12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的 改善과 活用方案/蔡 旭</p> <p>91-13 우리나라 서비스產業의 生産性變化和 生産性的 國際比較/兪鎮守</p> <p>91-14 舊東獨의 價格體係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裴眞永</p> <p>91-15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證券產業의 競爭力 제고방안/金泰俊</p> <p>91-16 폴란드 企業制度 改革과 直接投資 與件/洪裕洙</p> <p>91-17 韓·美間 直接投資의 구조와 投資環境의 變化/金南斗</p> <p>91-18 韓國·臺灣·日本의 產業政策和 產業構造 調整/柳在元</p> <p>91-19 우리나라 株式市場 開放의 效果分析/金宗萬</p> <p>91-20 東北亞 經濟協力的 與件과 展望/共同</p> <p>92-01 東北亞 地域 貿易構造와 域內 輸出競爭力 比較/鄭永祿</p> <p>92-02 貿易 관련 政策 및 制度的 현황과 改善方向/共同</p> <p>92-03 統獨 1年の 경제적 評價와 展望/裴眞永</p> |
|---|--|

- 92-0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① 日本의 貿易障壁 / 兪鎮守
- 92-05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① 保險産業의 國際化戰略 / 蔡 旭
- 92-06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② 原產地規程 / 韓弘烈
- 92-0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③ 日本의 輸入品 流通과 流通障壁 / 趙炳澤 · 李永俊
- 92-08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② 會計 서비스産業 國際化 推進方案 / 金宗萬
- 92-09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③ 우리 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 張義泰
- 92-10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進展과 外國人投資 與件 / 朴濟勳
- 92-11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 / 鄭永祿
- 92-1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과 展望 / 金益洙
- 92-1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④ 標準 및 檢査 制度 / 成克濟
- 92-1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⑤ EC의 貿易障壁 / 閔充基
- 92-15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展望과 影響 / 金博洙
- 92-16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韓國의 自由化 現況 / 金泰俊
- 92-1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⑥ 金融서비스 關聯 障壁 / 李長榮
- 92-18 유럽金融統合과 EC金融市場 進出方案 / 李在雄
- 92-19 東歐 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 洪裕洙
- 92-20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④ 流通産業의 開放效果와 對應戰略 / 申世敦
- 92-21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⑤ 廣告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 / 李相學
- 92-22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⑦ 政府調達 關聯 障壁 / 崔仁範
- 92-2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⑧ 美國의 貿易障壁 / 金南斗
- 92-24 輸入先多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 共 同
- 92-25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期待效果 / 孫炳海
- 92-26 UR 총점검 / 共 同
- 92-27 換率, 金利 및 賃金變動이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영향 / 金宗萬
- 92-28 國內先物去來所 設立 · 運營에 관한 研究 / 共 同
- 92-29 日本의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 金昌男
- 92-30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s / 金振鎭
- 93-01 GATT 및 主要先進國의 反덤핑制度와 우리나라 制度의 改善方案 / 蔡 旭
- 93-02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과 效果 / 韓弘烈
- 93-03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展開와 展望 / 金時中
- 93-04 日本의 技術貿易 / 兪鎮守
- 93-05 豆滿江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望 / 金學洙
- 93-06 블럭化時代의 亞 · 太經濟協力 / 共 同
- 93-07 中國의 技術導入 政策과 中日技術協力 / 吳勇錫
- 93-08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에 관한 研究 / 朴濟勳
- 93-09 日本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 / 康仁洙
- 93-10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과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影響 / 金宗萬
- 93-11 日本 自動車産業의 競爭力 強化와 下請分業生産의 役割 / 任千錫
- 93-12 先物去來 上場品目 選定에 관한 研究 / 曹正鉢
- 93-13 우리의 對舊蘇聯 經濟協力 基本戰略 / 李昌在

- 93-14 外換市場介入政策의 效果分析과
換率政策에 대한 政策示唆點/ 金泰俊
- 93-15 中國의 工業發展戰略과 産業政策/ 金益洙
- 93-16 中國 輸入構造變化와 우리의 對應方向/
鄭永祿
- 93-17 EC 經濟統合과 우리나라의 輸出構造 變化/
閔允基
- 93-18 韓美間 産業構造的 特性이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成克濟
- 93-19 NAFTA의 出帆과 美國 輸入市場에서의
韓國과 멕시코의 競爭力 比較/ 金尙謙
- 93-20 EC市場에서의 韓國의 競爭力 分析/ 金博洙
- 93-21 韓·中 環境協力에 관한 研究/ 共同
- 93-22 知的財産權 國際化的 方向과 課題/ 王允鍾
- 93-23 日本의 對아시아 技術移轉 戰略과 韓國의
對應/ 洪裕洙
- 93-24 러시아 極東地域의 經濟와 우리의
經濟協力方案/ 李昌在
- 93-25 UR 총집검(增補版)/ 共同
- 93-26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⑥ 엔지니
어링서비스 産業의 現況과 國際化 方向/
孫讚鉉
- 93-27 南·北韓의 統一에 비추어본 獨逸
信託管理公社의 役割과 意義/ 朴成勳
- 93-28 臺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
金時中
- 93-29 CIS 域內 交易 및 金融關係 分析/ 朴濟勳
- 93-30 日本企業의 對中直接投資의 動向과 戰略/
金益洙
- 93-31 最近 우리나라의 日本技術 導入現況과
政策方向/ 任千錫
- 93-32 環境關聯 經濟의 手段의 運用 現況 및 展望/
李鎭生
- 93-33 亞·太經濟協力的 새 方向/ 共同
- 93-34 交易條件變化와 資本自由化의 效果分析/
表鶴吉·權皓寧
- 93-35 21世紀를 향한 韓·日間 技術分業과 技術
協力的 基本方向/ 朴宇熙·森谷正規
- 93-36 中國의 對外貿易과 韓·中 輸出競爭/
吳勇錫
- 93-37 資本自由化와 換率政策方向/
孫正植·朴大權
- 93-38 東歐改革的 進展과 經濟協力 擴大戰略/
鄭甲泳
- 93-39 資本自由化에 관한 事例分析: 開途國과
先進國의 경험/ 金仁坡
- 93-40 亞·太經濟協力的 深化方案/ 共同
- 93-41 東歐 主要國의 民營化 研究/ 尹健秀
- 93-42 우리나라의 對東歐 交易現況과 展望/
權寧燾
- 94-01 戰略的 提携와 技術革新의 國際化/ 洪裕洙
- 94-02 NAFTA 原產地規程의 意義와 政策示唆點/
韓弘烈
- 94-03 統一이 東西獨의 産業立地와 産業構造에
미친 影響/ 裴眞永
- 94-04 議題 21과 우리나라의 持續可能開發 戰略/
韓宅煥
- 94-05 WTO出帆과 新交易秩序: 분야별 內容과
示唆點/ 共同
- 94-06 韓美間 科學技術協力 強化方案 研究/
洪裕洙
- 94-07 外國人直接投資의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研究/ 王允鍾
- 94-08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rogress in Conceptualization and in
Practice/ 共同
- 94-09 21世紀 東北亞經濟協力を 위한 推進戰略/
李昌在
- 94-10 韓中經濟協력과 在中國同胞의 役割/
金時中

- 94-11 ASEAN 主要國의 外國人直接投資誘致의 그 示唆點/魯在峯
- 94-12 韓美間 中長期 産業技術協力方案/洪裕洙
- 94-13 知的財産權과 競爭政策의 國際的 調和/ 丁相朝
- 94-14 外換自由化와 換危險管理/朱尙榮
- 94-15 統一以後 東獨經濟의 産業構造變化 研究/ 金龍龜·朴成勳
- 94-16 戰略的 貿易政策으로서의 R&D 補助金 政策의 方向/李正淵
- 95-01 日本企業의 對中進出:主要業種의 成果分析과 向後展望/申晚秀·李掌魯
- 95-02 國際金融市場의 統合과 資本費用/權才重
- 95-03 중국 內需市場의 構造的 特性和 進入 流通 障壁:消費財 工山品 市場을 中心으로/ 金益洙
- 95-04 亞·太 經濟協力的 新構想/李載星
- 95-05 貿易一環境 關聯課題와 우리나라의 立場/韓宅煥
- 95-06 우리나라의 公的開發援助/李昌在
- 95-07 日本 對美直接投資의 開發 및 評價/金寬濤
- 95-08 OECD 投資規範과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 制度/王允鍾
- 95-09 貿易과 環境의 連繫/李鎬生
- 95-10 中國의 WTO 가입이 中國經濟와 韓·中 經協에 미치는 영향/金益洙
- 95-11 海外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 分析/金準東·康仁洙
- 95-12 東北亞 地域技術協力體의 構想/洪裕洙
- 96-01 ASEAN 自由貿易地帶(AFTA)의 展開過程과 그 示唆點/元容杰
- 96-02 韓國大企業集團의 內部去來行爲와 競爭政策/禹榮洙
- 96-03 金融·資本自由化에 따른 金融危機 事例의 政策示唆點/朱尙榮
- 96-04 貿易과 勞動基準의 連繫/王允鍾
- 96-05 WTO 貿易自由化의 一般均衡效果分析/ 表鶴吉·鄭仁教
- 96-06 保護貿易의 費用分析/金南斗
- 96-07 派生金融商品市場의 開放과 危險管理/ 金寅培
- 96-08 WTO 體制의 定着 新通商議題/共 同
- 96-09 APEC 貿易自由化의 經濟的 效果/鄭仁教
- 96-10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李昌在
- 96-11 M&A型 直接投資에 關한 研究/王允鍾
- 96-12 APEC 經濟協力과 中小企業:主要國의 中 小企業政策과 中小企業協力 方案/安炯徒
- 96-13 新國際貿易規範下에서의 中間財 國產化政策/金泰亨
- 96-14 CGE 模型에 의한 韓國의 輸出入構造 및 巨視經濟 中期展望/文錫雄·金建弘
- 96-15 韓國의 小規模 自由貿易地帶 設立的 經濟 的 妥當性에 關한 研究/金泰亨·鄭仁教
- 96-16 非市場經濟國에 대한 3개국(미국, 캐나다, 한국)의 反덤핑措置 研究/金完淳·嚴寅鎬
- 96-17 一般特惠關稅制度(GSP)의 최근 동향과 韓國의 GSP導入에 關한 研究/金南斗
- 96-18 國際金融市場의 構造變化와 示唆點/ 曹正鉉
- 96-19 中國 政治·經濟에 關한 國內研究의 現況과 課題/共 同
- 96-20 北韓 價格政策의 現황과 개혁방향/趙明齊
- 97-01 美國 클린턴 제2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王允鍾

■ 연구보고

- 92-01 韓·東歐 經濟協力 增進方案/鄭重宰
- 92-02 投資事例로 본 對中國 投資戰略/白權鎬

92-03 베트남의 資源開發 戰略 / 李文植
 92-04 中國의 土地使用制度 分析 / 崔秀雄
 93-01 中國의 物資流通制度 分析 / 崔秀雄
 93-02 中國의 改革·開放에 관한 政治的 視角 / 李輔根
 93-03 쿠바의 經濟現況과 韓·쿠바 協力可能性 / 河泰鉉
 93-04 轉換期 러시아聯邦의 租稅制度 研究 / 鄭余泉
 93-05 東歐諸國의 投資環境 比較分析 / 鄭重宰
 93-06 中國 電子產業의 競爭力 要因分析和 우리의 對應 / 白權鎬
 94-01 中國의 地域政策和 地域經濟 發展戰略 / 崔秀雄
 94-02 中國 鄉鎮企業의 現況과 發展方向 / 李輔根
 94-03 中國 通信產業 發展現況과 우리 企業에 대한 示唆點 / 白權鎬
 94-04 러시아에서의 企業環境 變化 / 鄭余泉
 95-01 中國의 流通管理制度 改革과 流通業 開放 展望 / 崔秀雄
 96-01 轉換期 러시아聯邦의 國家豫算과 財政分權化 / 鄭余泉
 96-02 中南美의 新經濟秩序와 우리의 經濟協力 政策方向 / 金元鎬
 96-03 韓國의 對印度 進出戰略 / 李成樑
 96-04 中國의 食糧問題와 9.5計劃의 農政課題 / 崔秀雄
 96-05 中國의 工業化戰略과 外國人 直接投資 / 全載旭
 96-06 中國 內陸開發의 課題와 展望 / 朴月羅
 96-07 中·東歐 국가들의 EU加入 展望과 示唆點 / 鄭余泉

■ 조사분석/조사보고

92-01 中國의 經濟實績과 展望(1991~1992) / 楊平燮·安鍾石
 92-02 러시아聯邦의 外國人投資關聯制度 / 尹瓚赫
 92-03 中國 外國人直接投資 誘致政策의 變化和 韓國의 對中投資 / 安鍾石·楊平燮
 92-04 슬로베니아共和國의 經濟現況 / 車相敏
 92-05 러시아 極東地域의 軍需産業 民需轉換 現況과 問題 / 崔秉熙
 92-06 海南省의 經濟 및 投資概況 / 盧浩鎭
 92-07 체코·슬로바키아 兩共和國 工業構造 分析 / 朴相炫
 92-08 瀋陽市 投資環境 分析 / 朴相守
 92-09 中國經濟의 地方分權化 現況과 問題點 / 朴月羅
 92-10 中國 國營企業의 雇傭·賃金制度 改革 / 趙顯燮
 92-11 天津市 投資環境 分析 / 金京鎬
 92-12 中國의 證券市場 現況 / 韓亨九
 92-13 러시아聯邦 石油·가스産業 / 鄭珉旻
 92-14 러시아極東地域 經濟概況과 日本의 進出現況 / 林虎祥
 92-15 폴란드 貿易制度 分析 / 金奎坂
 93-01 韓國企業의 對中 投資 實態와 向後 課題 / 安鍾石
 93-02 中國의 外換管理制度 / 楊平燮
 93-03 러시아의 商品流通制度 改革 / 尹瓚赫
 93-04 中國의 外資企業 租稅制度 / 趙顯燮
 93-05 베트남의 外國人投資 誘致政策和 制度分析 / 權 栗
 93-06 上海市 投資環境 / 朴月羅
 93-07 러시아聯邦 輸送體系 / 鄭鎔株
 93-08 베트남 輸出加工區 開發政策和 現況 /

權 栗

93-09 美·中 經濟協力の 現況과 展望 / 安鍾石

93-10 러시아聯邦 鑛物資源開發 制度 / 崔聖基

93-11 칠레 經濟現況 / 張光翼

93-12 東歐 主要國의 雇傭·賃金制度 分析:
폴란드, 헝가리, 체코를 中心으로 / 金奎坂

93-13 日本의 對中 經濟協力 實態 / 金京鎬

93-14 中國의 輸入管理制度 / 朴相守

93-15 멕시코 經濟現況 / 金榮敦

93-16 브라질의 資源開發現況 / 朴英鎬

93-17 中國의 建設業 現況과 進出 可能性 / 趙顯俊

94-01 東歐 主要國의 國有企業 私有化 政策 및 制度 / 金奎坂

94-02 中國의 自動車 産業 現況과 韓·中 協力方案 / 安鍾石

94-03 中國의 對外貿易管理制度 / 朴相守

94-04 主要國의 對베트남 經濟協력과 韓國의 ODA 支援方向 / 權 栗

94-05 主要 先進國의 對印度 經濟協力 現況과 우리나라의 經協方向 / 趙忠濟

94-06 러시아의 輸出入制度 / 尹瓚赫

94-07 아세안 自由貿易地帶의 形成과 우리의 對應方案 / 楊平燮

94-08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外國人投資 制度 / 李哲元

94-09 러시아의 雇傭·賃金制度 / 徐承源

94-10 러시아의 銀行制度 / 李聖揆

95-01 러시아 證券制度 및 市場 現況 / 崔秉熙

95-02 러시아 自由經濟地帶 推進 現況 / 鄭鎔珠

95-03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租稅制度 / 李哲元

95-04 시베리아地域의 賦存資源 및 開發現況 / 徐承源

95-05 ODA 運用體制 改善方案 / 權 栗

95-06 韓·인도네시아 經濟協力 強化方案 公的開

發援助(ODA)를 中心으로 / 金完仲

95-07 中美共同市場(CACM) 및 會員國別 經濟現況 / 朴英鎬

96-01 西方의 러시아 石油·가스부문 進出과 우리나라의 示唆點 / 徐承源

96-02 韓國企業의 對CIS 投資實態 및 課題 / 李哲元

96-03 러시아 經濟地域의 經濟·社會現況 分析 / 鄭鎔珠

96-04 러시아의 최근 兩大選舉와 向後 政策變化 展望 / 崔秉熙

96-05 對미안남 經濟協力 強化方案 / 鄭在完

96-06 멕시코의 公企業 民營化 推進過程 分析 / 金亨洙

96-07 브라질의 民營化 推進現況과 向後 展望 / 鄭善祐

96-08 中國 國有企業 民營化的 展開과 展望 / 趙顯俊

97-01 韓國企業의 對中 投資 實態 및 經營成果 分析 / 朴相守

■ 國別편람

92-01 中國便覽

92-02 러시아聯邦便覽

92-03 베트남便覽

92-04 헝가리便覽

92-05 폴란드便覽

93-01 1993 러시아便覽

93-02 山東省便覽

93-03 遼寧省便覽

93-04 우크라이나便覽

93-05 카자흐스탄便覽

93-06 불가리아便覽

93-07 루마니아便覽
 93-08 몽골便覽
 93-09 臺灣便覽
 93-10 멕시코便覽
 93-11 吉林省便覽
 93-12 1993 中國便覽
 93-13 쿠바便覽
 93-14 파키스탄便覽
 93-15 인도便覽
 93-16 黑龍江省便覽
 94-01 체코공화국便覽
 94-02 우즈베키스탄便覽
 94-03 러시아便覽
 94-04 러시아 極東地域 便覽
 94-05 미얀마便覽
 94-06 中國便覽(增補版)
 94-07 폴란드便覽
 94-08 스리랑카便覽
 94-09 四川省便覽
 94-10 브라질便覽
 94-11 칠레便覽
 94-12 아르헨티나便覽
 94-13 인도네시아便覽
 94-14 1994 베트남便覽
 95-01 1995 몽골便覽
 95-02 1995 헝가리便覽
 96-01 페루便覽
 96-02 1996 멕시코便覽
 96-03 1996 불가리아便覽
 96-04 파라과이便覽
 96-05 필리핀便覽
 96-06 호주便覽
 96-07 광동성便覽
 96-08 방글라데시便覽
 96-09 말레이시아便覽

96-10 호북성便覽
 96-11 1996 러시아便覽
 96-12 江蘇省便覽
 96-13 뉴질랜드便覽
 96-14 루마니아便覽
 96-15 콜롬비아便覽
 96-16 홍콩便覽
 96-17 우루과이便覽
 96-18 하북성便覽
 96-19 베네수엘라便覽
 96-20 카자흐스탄便覽
 96-21 인도便覽

■ 정책자료

92-01 獨立國家聯合의 '91年 經濟實績
 92-02 러시아 政府의 經濟改革具體化프로그램
 92-03 헝가리 輸出入 管理制度
 93-01 主要 開途國 經濟指標
 93-02 中國共產黨 第14期 3中全會 決定과 鄧小平의 南巡講話
 94-01 韓·러시아 經協關聯 主要 制度 解説
 94-02 中國經濟發展의 理論的 思考와 政策選擇
 94-03 對中國 韓國 投資企業의 經營成果 分析
 94-04 日本의 中國 東北3省 進出現況과 展望
 94-05 러시아 産業財産權 制度
 94-06 環渤海灣 地域의 主要 社會間投資本 施設 現況
 94-07 홍콩 返還과 관련한 홍콩 法制
 94-08 浙江省의 經濟現況
 94-09 중국 동북3성의 교통사회간접자본 현황
 95-01 中國의 第9次5個年計劃 및 2010년까지의 長期計劃
 95-02 東歐의 經濟與件 變化와 韓·東歐

經協增進 方案

- 95-03 中國의 抗日戰爭 勝利 50周年 記念
演說文集
- 95-04 러시아의 外換管理制度
- 96-01 21세기를 향한 中國의 經濟發展計劃
- 96-02 中國의 國有企業 改革에 관한 最近資料
- 96-03 라오스 經濟改革과 開發課題
- 96-04 MERCOSUR 會員國의 經濟統合政策과

推進方向

■ 참고자료

- 92-01 러시아聯邦 議會·政府 人名錄
- 93-01 베트남 關稅率表

調查分析 97-01

韓國企業의 對中投資 實態 및 經營成果 分析

1997년 12월 10일 인쇄

1997년 12월 15일 발행

발행인 楊秀吉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8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001,1114 FAX: 3460-1122,1199

인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273-7011 대표 李鎬烈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7028-9